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클레멘타인 로즈와 최고의 선물

(Clementine Rose and the Perfect Present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英學科

尹 順 煥

2014年 2月

클레멘타인 로즈와 최고의 선물

(Clementine Rose and the Perfect Present 翻譯論文)

指導教授 김 원 보

尹 順 煥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2月

尹順煥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4年 2月

클레멘타인 로즈와
최고의 선물

재클린 하비

초대

클레멘타인 로즈는 엄마 허리에 팔을 두르고 발끝으로 서 있었다. 엄마는 몸을 숙여 아이이마에 입을 맞췄다.

“잘 다녀오너라.” 클라리사 귀부인은 딸에게 말했다.

“네, 엄마.” 클레멘타인은 바구니가 있는 스토브 근처로 뛰어갔다. 애완돼지 라벤더와 바이올렛 고모의 스팅크스 고양이 파라오가 서로 엉켜 있었다. 클레미는 무릎을 구부려 얼굴을 갖다 대었다. 파라오는 까칠한 혀를 쭉 내밀어 클레멘타인의 뺨을 핥았다.

“간지러워, 파라오.” 클레미가 킁킁 거렸다.

라벤더는 꿀꿀거리고는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잤다.

“어서 가야지, 클레미. 덕비 아저씨가 기다리시겠다.” 라고 말하고, 엄마는 돌아서서 뒷 계단을 올라갔다. 이번 주말에 있을 손님맞이를 위해 침실이 모두 정돈 됐는지 확인하러 간 것이다. 클라리사 귀부인이 펜버디 하우스에 숙박 손님을 받은 이후로 예약이 다 찬 것은 처음이었다.

클레멘타인은 꿈지락거리며 코트를 입고 책가방을 어깨에 걸쳤다.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는 급히 현관으로 향했다.

클레멘타인은 현관문을 열어젖히며 벽에 걸려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초상화를 보며 말했다. “다녀올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클레멘타인은 바이올렛 고모가 삼층 계단에 서 있는걸 보지 못했다.

“재는 에드먼드 오빠가 신경 써 주는 건 잘 모르나 봐요” 바이올렛은 자기 오빠의 초상화를 보며 말했다. 그녀는 클라리사가 자기 쪽으로 오고 있는 건 미처 모르고 있었다.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고모?” 나이가 아래인 클라리사가 물었다.

“그런 적 없어!” 고모는 딱 잘라 말했다 “넌 환청이 들리나 보구나, 클라리

사?”

조카는 씩 웃었다. “클레멘타인 때문에 이젠 돌아가신 분들 하고도 얘기하시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 재는 자기 혼자 동화 속에서 말하는 거야.” 고모는 발끈하며 말했다. “그런 일로 오빠나 다른 누구와도 이야기 한 적 없어.”

“애가 그런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잖아요.” 클라리사가 대답했다.

“클레멘타인은 가족들 모두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싱거운 소리 하기는.” 바이올렛은 헛기침을 하며 욕실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러는 동안, 클레멘타인 로즈는 덕비 아저씨를 만나 차에 탔다. 펜버디 플로스에서 학교가 있는 하이튼 밀까지 짧은 거리를 가는 동안 두 사람은 늘 그랬던 것처럼 대화를 나눴다.

조그만 차는 양쪽에 작은 돌담이 늘어선 길을 털털거리며 달렸다. 차는 곧 엘리리 초등학교의 화려한 문과 예쁜 울타리 밖에 멈춰 섰다. 클레멘타인은 앞좌석 사이로 몸을 기울여 아저씨 뺨에 뽐뽐했다.

아저씨는 몸을 돌려 클레미를 향해 활짝 웃었다. “잘 다녀와라 클레미.”

“네” 클레멘타인은 차에서 폴짝 뛰어내려 이제 막 도착한 소피에게 뛰어갔다.

덕비 아저씨는 유리창을 조금 내렸다. “안녕하세요, 피에르 씨.” 덕비 아저씨가 소피 아버지를 향해 외치자, 그의 따뜻한 입김 때문에 차가운 유리창에 김이 서렸다. 소피네 차는 길 건너편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덕비 씨. 클라리사 귀부인에게 말 좀 전해주세요. 케이크가 거의 다 됐는데 정말 예쁘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는 엄지와 검지를 모아서 입에 댔다.

“잘됐네요, 피에르 씨. 제가 가게에 들러 잠깐 봐야겠네요.” 덕비 아저씨는 링크를 했다. “그러면 제가 클라리사 귀부인을 안심시키며 케이크가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알려줄 수 있겠죠.”

“아, 크림빵도 곧 준비 될 것 같네요.” 피에르가 대답했다.

“몇 군데 배달을 해야 하지만 오데트가 있으니까요”

딕비 아저씨는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다시 작은 차를 천천히 도로로 몰고 나갔다. 가게가 멀지 않아서 걸어갈 수 있었지만, 바람이 쌀쌀하고 지난 며칠 동안 몸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주말까지는 아프지 않기를 바랐다. 그의 도움 없이 클라리사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많은 손님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클레멘타인과 소피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곧장 교실로 들어간 뒤 가방을 내려놓았다. 파피는 먼저 와서 반에서 제일 똑똑한 에스트리드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누구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할 때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에스트리드였다.

아이들은 서로 인사 하고 종이 울리기 전까지 땅따먹기 놀이를 하기로 했다.

“너희들 앵거스 생일파티에 갈 거야?” 차가운 돌맹이를 아스팔트에 던지면서 파피가 애들에게 물었다.

소피와 에스트리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클레멘타인은 뺨속으로 찌르르한 느낌이 들면서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의아해했다.

“난 정말 가기 싫은데 엄마는 그런 데 가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래. 특히 앵거스가 직접 초대장을 써서 우편으로 보냈잖아.” 소피가 설명했다. “넌 갈 거야, 클레멘타인?”

“난 초대 받지 않았는데.” 클레멘타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우체국 아저씨가 너희 집에는 늦게 도착하나봐. 내 초대장도 어제야 도착했는걸.” 에스트리드가 그럴 듯한 이유를 댔다.

클레멘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편물은 매일 오지 않았고, 엄마나 딕비 아저씨가 모그 부인네 가게로 우편물을 가지러 가야 했기 때문이다.

앵거스와 조슈아가 여자애들 옆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너희들, 선물은 좋은 걸로 줘야해.” 앵거스가 소리쳤다. “안 그러면 너희들을 묶어서 용에게 먹이로 줄 거야.”

“그래 맞아.” 조슈아가 소리쳤다. “앵거스네 용은 진짜 못 됐거든.”

클레멘타인은 코를 찡그렸다. “그 용도 제멋대로 굴게 분명해. 앵거스와 앵거스네 할머니처럼.”

소피가 클레멘타인을 보면서 크게 헛기침했다.

바텀리 선생님이 바로 아이들 뒤에 서있기 때문이다. “지금 뭐라고 했지? 꼬마아가씨?”

클레멘타인이 돌아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클레멘타인은 거짓말을 했다. 바텀리 선생님은 앵거스의 할머니였기 때문에 클레멘타인은 자신이 한말을 듣지 못했기를 바랐다.

“이 생일 파티를 열기 위해 내 딸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줘야겠구나. 딸에게 방과 후에 파티를 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었다. 왜냐면 방과 후에는 너희들이 분명 피곤하다고 투덜거릴 테니깐. 그리고 나에게 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구나, 이번엔 그 무시무시한 네 고양이가 먹어치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바텀리 선생님은 지난번 스펀지케이크 사건에 대해 말씀하셨다. 애완동물의 날에 선생님이 케이크를 만드셨는데 고모할머니의 고양이 파라오가 야금야금 먹었고 바텀리 선생님이 넘어지면서 완전히 망가졌었다.

“행동이 바르지 못한 학생들은 초대목록에서 제외시키라고 했다.” 선생님은 클레멘타인을 향해 눈을 치켜뜨고는 갔다.

클레멘타인은 또 다시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정말 자신이 초대받지 못한 거면 어찌지? 선생님은 내가 생일파티에서 말썽을 피울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조슈아 부터 우리교실에는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꽤 있다. 조슈아는 언제나 말썽을 부린다. 특히 주임선생님인 크리츨리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

소피는 얼굴을 찌푸렸다. “선생님은 너무 못됐어.”

“걱정하지 마, 클레멘타인. 네가 초대를 못 받으면 나도 엄마한테 가지 않겠다고 말할게. 파피가 말했다.

“난 어쨌든 앵거스의 바보 같은 파티에 가기 싫어.” 클레멘타인은 말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아침 차 마시는 시간에 클레멘타인은 자신을 제외한 반 학생 모두가 초대 받은 걸 알았다. 파티에 왕과 왕비, 공주와 왕자처럼 웃도 입고 오라고 했다.

앵거스는 여왕과 공주만 초대한다고 한다. 그래야 왕과 왕자가 그들을 잡아서

정원 아래 동굴에 살고 있는 용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아스트리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왜냐면 모두가 용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클레멘타인은 확신 할 수 없지만 아스트리드 말이 맞기를 바랐다.

클레멘타인은 잘 차려입는 것을 좋아한다. 심지어 완벽한 복장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 옷은 모그 부인이 일 년 전에 클레미의 공주파티를 위해 만들어 준 것이다. 레이스가 달린 분홍색 드레스에 그 아래로 고리모양 치마가 있어서 눈에 잘 띄었다. 정말 공주가 입을만한 옷이었다. 분홍색 돌이 박힌 은색 왕관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엄마는 다락방의 트렁크 속에서 긴 진주 목걸이와 진주 팔찌를 찾아냈다. 클레멘타인은 오후에 집에 가면 초대장이 와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랐다.

소외감

“앵거스가 파티를 열어요, 엄마” 클레멘타인은 엄마가 학교에 자신을 데리러 왔을 때 말했다.

“잘됐구나, 클레미.” 엄마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주말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일들을 검토하는데 정신이 쏠려있었다.

“모두가 초대 받았어요” 클레멘타인은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아치보드 부부는 참 친절하구나.”

“저만 빼고요.” 클레멘타인은 불멘소리를 냈다.

“오 저런, 나쁘네.” 엄마는 말했다. 그녀는 거울속의 풀 죽은 딸의 모습과 도로를 번갈아 살폈다. “

“오늘 온 편지 있었어요?” 클레미는 혹시나 하며 물어봤다.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애야. 집에 도착하면 함께 확인해보자. 파티가 언제 라고?”

“화요일 학교 끝나고요. 근데 전 신경 쓰지 않아요.” 클레멘타인은 손으로 눈을 닦았다.

“앵거스는 못됐어.”

“난 네가 그 애와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차분히 말했다.

클레멘타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바텀리 선생님이 앵거스 엄마에게 말썹을 일으키는 아이는 초대하지 말라고 했데요. 그리고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신경 쓰지 말거라, 클레미.” 너만 괜찮으면 내가 앵거스 엄마에게 전화해서 혹시 실수로 초대장을 안 보낸 건지 확인해보마.” 클라리사는 말했다.

“안돼요! 그러면 앵거스가 저를 울보라고 부를 거예요. 전 가기 싫어요.”

“네가 정 그렇다면 엄마는 관여하지 않으나. 그리고 집에서도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이번 주말에 엄마는 네 도움이 필요해.” 클라리사는 백미러를 통해 미소 지었다.

“안됐지만 덕비 아저씨는 쉴 새 없이 일해야만 해. 바이올렛 고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잖니.”

클레멘타인은 앵거스와 그의 파티를 다시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집에서 훨씬 더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엄마가 집에서 결혼식을 연다고 처음 얘기 했을 때, 클레멘타인은 몹시 흥분됐다.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다. 클레멘타인은 단 한 번도 결혼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두 어디에 앉아요?” 클레멘타인은 처음 결혼식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마에게 물어봤었다. 펜버디 하우스는 크지만 응접실에는 기껏해야 20명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뒤뜰에다 천막을 칠 예정이란다.” 엄마는 설명했다.

“천막을요? 그러면 응접실보다 훨씬 작을 텐데요.” 클레멘타인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요정처럼 작은지 궁금했다.

“오 아니란다, 클레미. 우리 천막은 무척 크단다.” 엄마는 딸을 안심시켰다.

“서커스 처럼요?” 클레멘타인이 물어봤다, 엄마와 덕비 아저씨는 지난번 하이튼 밑에서 열리는 서커스에 클레미를 데리고 갔었다.

“응 비슷하단다.” 엄마는 대답했다.

“하지만 코끼리나 사자는 빼셔야 돼요,” 클레멘타인은 말했다.

엄마가 처음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 했을 땐 그 날이 멀게만 느껴졌었다. 처음 결혼식을 들었을 때는 고모할머니가 이곳에 머물기 전이었고 클레미가 입학하기 전이었다. 이제 하루만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천막을 칠 것이고 손님들이 도착할 것이다. 모든 방은 결혼식 파티에 올 가족들로 전부 예약이 되어 있었다.

차가 진입로로 들어섰을 때, 클레멘타인은 덕비 아저씨 차 옆에 모그 부인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아 다행이야.” 클라리사 귀부인은 안도의 숨을 내쉴었다.

“마가렛이 오늘 오후에 와서 덕비 아저씨 청소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했어.”
클레멘타인은 모그 부인에게 편지들도 가져왔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클레멘타인은 앵거스나 그의 파티에 신경 쓰이는 건 아니다. 단지 확인하려는
것뿐이다.

특별한 날을 위한 특별한 천막

토요일 아침, 클레멘타인 로즈는 집 뒷편 계단에 앉아있었다. 클레미는 일꾼들이 망치질을 해서 땅에 기다란 대못을 한 줄로 박아 넣는 것을 보았다. 하얗고 커다란 담요 같은 천이 잔디에 넓게 펼쳐져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이것이 천막으로 세워지는 걸 빨리 보고 싶었다.

라벤더는 클레멘타인 옆에 앉아 겨울 햇볕을 쬐며 잠이 들었다. 클레멘타인과 돼지 둘 다 예쁜 파란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모그 부인이 몇 주 전에 떠 준 것이다.

어제 학교에서의 하루는 끔찍했다. 모두들 파티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앵거스는 온갖 종류의 선물을 요구했다. 클레멘타인은 초대장을 받지 못해서 애들 얘기는 무시하고 집에서 있을 일만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앵거스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마다 클레멘타인은 다시 뱃속이 쿡쿡 쑤시는 느낌이 들었다. 앵거스는 클레멘타인에게 선물에 대해 물어 보기까지 했다. 클레미는 자신이 초대받지 못 한다면 선물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며칠 사이에 날씨는 훨씬 더 추워졌고 마지막 남은 가을 낙엽들이 땅 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정원이 조금 슬퍼 보이고 지저분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클레미는 천막 안이 충분히 따뜻할지 궁금했지만 엄마는 이번 천막이 보통천막과는 다르다고 확신했다. 클레멘타인은 그것이 소피네 집 뒷마당에 있는 작은 텐트보다 훨씬 커 보인다고 생각했다. 소피와 클레미는 소피네 텐트에서 놀곤 했다.

덱비 퍼츠위슬은 집에서 나온 뒤 클레멘타인과 라벤더 옆에 있는 계단 위에 섰다.

“애들아 안녕.”

클레멘타인은 아저씨를 보고 웃었다.

“안녕하세요, 덕비 아저씨. 천막이 곧 완성 될까요?”

아저씨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러길 바라야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단다. 마키만이라도 세워지면 엄마의 걱정거리 하나가 주는 셈이지.”

“마키가 뭐예요?” 클레멘타인은 물어봤다.

“천막의 고급 이름이란다. 클레멘타인.” 덕비 아저씨는 대답했다.

“신부들은 평범하고 낡은 천막에서 결혼하고 싶지 않을 텐데.”

클레멘타인은 온몸이 짜릿한 기분이 들었다. 드레스 입은 신부를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이다.

“정말 큰 일 이에요.” 클레멘타인은 말했다

“응, 그렇고말고.” 덕비 아저씨가 말했다. 아저씨는 전에 이 집에서 있었던 다른 결혼식을 생각했다. 그것은 아주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의 바이올렛 애플비가 첫 번째 남편과 올린 결혼식이었다. 불행히, 그 남편은 몇 년 후 그녀의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나버렸다. 그 당시 덕비 아저씨는 젊은 청년이었고 집사로 일한지 일 년 밖에 되지 않을 때였다.

“라벤더와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클레멘타인은 물었다.

“글쎄.” 덕비 아저씨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입술을 톡톡 쳤다. 남아있는 일은 대부분 광을 내거나 청소하는 일뿐인데, 클레멘타인에게 먼지떨이를 시킬 수는 없었다. 지난번 클레멘타인이 집안일을 거들 때 실수로 가보인 꽃병을 엮어서 꽃병 윗부분에 이가 빠졌다.

“좋은 생각이 있다.” 덕비 아저씨가 말했다. “네가 쓴 시들 중 하나를 연습해서 손님들이 도착한 뒤에 즐겁게 해주는 건 어떨겠니?”

클레멘타인은 끄덕였다. “아저씨가 가르쳐준 새로운 시가 있잖아요. 부루노씨와 일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아저씨들은 망치질을 할 때 분명 지루할거예요.”

덕비 아저씨는 클레멘타인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방해만 말거라.”

“알겠어요.” 그녀는 서 있다가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따라와 라벤더” 작은 돼지는 눈을 뜨더니 허둥지둥 움직였다.

클레멘타인은 행진하듯 정원으로 걸어갔고 의자에 올라 낭독 할 준비를 했다.

근처에서 일하던 한 노인이 자신이 어린 시절 부르던 것과 같은 시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리고 곧 클레멘타인과 함께 낭독했다.

“매우 영리한 꼬마로구나. 이름이 뭐니?” 클레멘타인이 낭송을 끝내고 인사를 하자 노인이 물었다.

“클레멘타인이에요.” 클레미는 대답했다.

노인은 클레미를 보며 크게 웃었다. “우리를 위해 한 곡 더 낭송 해 줄 수 있니?”

클레멘타인은 자신이 시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클레미는 시 몇 편을 암기하고 있었다. 특히 달이라는 사람이 쓴 시를 가장 좋아했고 그 시는 재미있기에 관한 것이다. 이번엔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클레미의 시 낭송을 들었다. 이곳에서는 광광 거리는 망치소리 사이사이에 시낭송과 라벤더의 꿀꿀대는 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다.

집 위층에선 바이올렛이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장식품을 만지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클레멘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이올렛은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 노부인은 창문 밖을 내다봤다. 그녀는 클레멘타인이 어제 오후부터 정원 일을 보는 일꾼들과 수다를 떠는 모습에 경악했다.

바이올렛은 창문을 열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었다.

“클레멘타인 거기서 뭘 하는 게야?” 거기 사람들은 일하러 온 거지 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들으러 온 게 아니다.”

“고모할머니 안녕하세요.” 클레멘타인은 대답했다. “그냥 연습 중이에요.”

“다른 곳에 가서 해라.” 바이올렛이 말했다. “거기 일꾼들은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어.”

“그렇지만 같이 연습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요.” 클레멘타인은 말했다.

그녀는 현관 입구에 걸려있는 초상화를 생각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빼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아저씨들만큼 많이 웃지 않을 거예요.”

“너의 할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도 많이 웃지 않으셨다, 클레멘타인. 돌아가셨다고 해서 변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구나.” 바이올렛은 비웃듯이 말했다.

한 건장한 젊은 남자가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괜찮습니다, 부인. 이 아이는 방해가 안돼요. 매우 재미있어요. “

“클레멘타인, 저 사람들 곁에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거라.” 고모할머니는 재촉했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젊은이는 의심스러워하며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시도 못 들어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군요.” 바이올렛은 씩씩거렸다. “그러나 책임자에게 당신의 무례함을 전할 겁니다.”

“브루노 씨예요.” 클레멘타인은 그녀 앞에 서있는 키 작은 아저씨를 가리켰다. “이 분이 사장님이예요.”

“브루노 씨는 바이올렛의 찌푸린 얼굴을 쳐다보고서는 클레멘타인을 바라봤다. “저 분은 언제나 늘 사랑스러우시니?” 클레멘타인에게 물었다.

고모할머니는 낮은 소리로 불평을 하더니 창틀이 덜컹거릴 정도로 창문을 세게 닫았다.

“아니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클레멘타인은 대답했다.

“그게 고모할머니 특징인걸요.”

마술

정오 때까지, 브루노 씨와 일꾼들은 줄을 조이고 못 박는 일을 끝냈고 뒷마당 한가운데는 거대한 하얀색 천막이 세워져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그 천막이 마치 거대한 결혼 케이크 같다고 생각했다.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여러 원반 탁자들을 놓고 갔다. 그리고 의자들 역시 이곳으로 싣고 왔다.

클레멘타인은 이제까지 보았던 사람 중에 가장 특이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라벤더와 함께 마키 안을 구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떻게, 어떻게 시간이 없어, 없어, 서둘러야겠어, 여러분 우리 모두 일을 시작해 봅시다.”

그가 중얼거렸다. “잘라요 잘라!”

클레멘타인과 라벤더는 탁자아래에서 지켜봤다. 그 남자는 밝은 파란색 셔츠에 빨간색 나비넥타이와 빨간 신발을 맞춰 입고 있었다. 양복 주머니에 꽂아 둔 빨간색과 노란색 물방울무늬 손수건이 빠져나와 있었다. 그는 바쁜 교차로에서 교통 차량에게 지시하는 듯이 그의 손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의 뒤에 있는 텐트로 들어가서 꽃꽂이부터 반짝이는 천의 두루마리까지 모든 종류의 도구들을 운반했다.

모든 걸 다 지켜본 클레미의 눈이 쟁반만큼 휘둥그레졌다.

그 남자는 손뼉을 쳤다. “아직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마술을 시작합니다.”

클레멘타인은 그가 공연을 할지 궁금했다. 그래서 얼른 탁자 밑에서 나와서 앞으로 뛰어갔고 그 남자는 놀라서 폴짝 뛰었다. “세상에나 꼬마야, 어디서 나타난 거니?”

“안녕하세요?” 클레멘타인이 말했다. “아저씨 신발 멋지네요.”

그 남자는 자신의 멋진 신발을 응시했다 “고맙구나, 여기 또 누가 왔을까?” 그는 라벤더를 보자 이마에 주름이 졌다. 라벤더는 재빨리 달려와서 자기 주인 옆에 앉았다.

“전 클레멘타인이고 애는 라벤더예요.” 클레멘타인이 대답했다.

“어쩜 애야.” 그 남자는 예쁜 윗옷과 아래옷을 맞춰 입은 소녀와 점퍼 입은 돼지를 살펴보았다. 몸을 구부려서 라벤더의 머리를 긁어주었다. 라벤더는 그의 손가락에 기대어 기분 좋아 꿈틀거렸다.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작은 돼지 같구나, 그리고 맞춰 입은 옷이 너무나 맘에 든단다.”

“모그 아주머니가 만들어 줬어요.” 클레멘타인은 설명했다. “아저씨는 마술가세요?”

남자의 이마에는 주름이 잡혔다.

“아저씨가 ‘마술을 시작하자,’ 라고 말했잖아요.” 클레멘타인은 아저씨가 말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켰다.

“그래, 그래, 난 마술사 갖은 사람이지.”

“몇 시간만 나에게 주면 이 텐트는 칙칙한 곳에서 근사한 곳으로 변할 거야. 이 결혼식은 세바스찬이 부리는 마술로 완벽해질 거야.”

“그리고 바로 내가 세바츠찬 스모트란다. 잘 부탁한다.” 그는 손을 올리면서 꾸벅 인사를 했다.

클레멘타인은 킁킁거렸다. “아저씨는 재밌어요.”

“난 모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여기 왔단다.” 세바스찬은 대답했다. “그러나 우리 꼬마 아가씨와 어린 돼지에게 밖에 나가서 놀라고 제안해도 될까? 다시 너희들이 여기 왔을 때 이곳을 알아볼 수 없을 거다, 장담하마.”

클레멘타인은 좀 더 여기 있어서 마술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었지만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클라리사 귀부인은 입구 안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클레멘타인, 어서 나가자 그래야 스모츠 아저씨가 일을 하시지. 벌써 점심시간이란다.”

“안녕히 계세요.” 클레멘타인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전 아저씨 마술이 무척 보고 싶어요.”

아저씨는 클레멘타인을 보며 활짝 웃은 뒤 배달 온 커다란 상들리에의 위치를 지시하기 위해 급히 나갔다.

“안돼, 안돼, 안돼!! 부딪치는 소리가 크게 나자 그는 소리쳤다.

“난 결혼식이 너무나 좋아요.” 클라멘타인은 엄마와 그리고 몇 걸음 뒤쳐져 오는 라벤더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열변을 토했다. “한 번도 결혼식에 참석해 본적은 없지만요.”

“난 그저 별 탈 없이 잘 돌아가기만을 바랄 뿐이란다.” 클라리사 귀부인이 말했다. 엄마는 긴장한 채 딸에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날 아침 신부의 엄마, 즉 로버타 폭스라는 굉장히 성질 급한 여성으로부터 최소 열통의 전화를 받았다. 마지막 전화는 화장실비누 색에 관한 것이었다. 클라리사 귀부인은 자신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바이올렛 고모라는 작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람들에게 시비걸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클라리사 귀부인은 결혼식 준비를 위해 절반이상의 마을사람들을 고용했고 스모츠 씨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총 책임을 맡고 있었다. 따라서 바이올렛 고모가 참견하지 않는다면 다행인 것이다. 클라리사 귀부인은 이번 일을 잘 치룬 후 집안의 보석을 팔지 않고도 펜버디 저택의 새로운 지붕 값을 지불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손님들은 언제 오나요? 클레멘타인이 물어봤다.

“오늘 저녁에 모두 도착할 예정이란다.” 엄마가 대답했다. “네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단다, 클레미 그러나 넌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 멀리서 결혼식을 볼 수 있지만 방해가 되선 안 돼.”

클레멘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신부도 보고 싶고요.”

“알아 네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하지만 이번 일을 잘 치루는 게 매우 중요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인생의 가장 큰 행사란다. 그래서 엄마는 신부와 신랑이 특별한 날 펜버디 저택에서 행복한 기억만을 갖고 가기를 바랄 뿐이야.” 엄마는 설명했다.

“그럼 고모할머니는 결혼식에 함께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할머니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클레멘타인은 진지하게 말했다.

“고모할머니는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눈썹을 올리며 엄마가 물어봤다.

“글쎄요.” 클레미는 어깨를 으쓱했다. “전 고모할머니가 책 읽어 줄 때가 좋아요. 그런데 고모할머니는 내방에서 라벤더와 자는 파라오에게 짜증을 내요. 그래서 고모할머니께 라벤더의 바구니를 하룻밤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고모할머니는 ‘음’ 하면서 인상을 썼어요. 근데 제 생각엔 싫어하는 척 하는 거 같아요. 다음날 아침 고모할머니가 라벤더를 쓰다듬는 것을 봤거든요. 고모할머니께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라벤더는 골칫거리라면서 아래층으로 쫓아 버렸어요.”

클라리사 귀부인은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신경 쓰지 말거라 클레미, 이제 엄마는 오후까지 많은 일을 해야 한단다. 가서 점심 먹자, 그 뒤엔 네 방에서 놀아라.”

라벤다는 마치 알겠다는 듯이 꿀꿀거렸다.

“알겠어요.” 클레미는 대답하고 엄마 손을 잡았다.

바이올렛 고모

클레멘타인은 식탁에 고모할머니와 마주보고 앉았다.

“고모할머니 안녕하세요.”

“음.” 바이올렛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고모할머니, 신나지 않아요?” 클레멘타인은 물어봤다.

바이올렛은 클레멘타인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 책을 읽었다.

클레멘타인은 엄지와 검지를 꼭 잡았다.

“정말 조금도 신나지 않으세요, 고모할머니?”

바이올렛 애플비는 한숨을 쉬더니 신문을 반으로 접고 식탁 위에 두었다.

“그래, 내가 뭐 때문에 신나야 하는 게냐? 굳이 만날 필요 없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것? 또는 내일 비가 올 거라는 것? 응?”

클레멘타인은 고모할머니를 향해 인상을 썼다.

“결혼식이요. 결혼식이 너무나 기대 되요. 그리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신부도요. 내일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 드레스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모그 아주머니가 만들어 준 노란 옷 중 뭘 입을지 모르겠어요.”

“클라리사, 이 아이는 이 끔찍한 행사에 자신이 초대 되지 않은 걸 모르는 것 같구나.”

의자 앞에서 클레멘타인에게 줄 치즈 샌드위치를 삼각형으로 자르고 있는 조카에게 바이올렛이 물었다.

“알고 있어요, 고모. 클레미는 신 난 것 뿐 이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집에서 결혼식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모도 인정하시죠, 자신의 결혼식 날 신부는 언제나 사랑스럽잖아요.” 클라리사는 샌드위치를 접시에 넣고 클레미 앞에

갖다 놓았다.

“그것만큼 끔찍한 것도 없지.” 바이올렛은 비아냥거렸다.

딕비 퍼츠위슬은 싱크대에서 주전자를 채우면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바이올렛을 봤다.

“참 이상하죠, 바이올렛.”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녀가 물었다.

“결혼식을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네 번이나 하지 않았나요?”

“네 번이나요!” 클레멘타인은 고모할머니를 바라봤다.

“신부를 네 번이나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바이올렛이 말을 잘랐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 다시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고맙겠네요, 퍼츠위슬씨.”

“고모할머니는 무척 예뻐할 거예요.” 클레멘타인이 말했다. “특히 계단 위에 걸려있는 그림 속 여자를 닮았으면요.”

“바이올렛은 코웃음을 쳤다 “물론 내가 젊었을 때는 꽤 매력 있었지.”

“고모할머니 드레스에 대해 얘기 해주세요.”

클레멘타인은 물어봤다. “고모할머니,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여러 번” 딕비 아저씨는 입 속으로 중얼거렸다. 클라리사가 그를 쿡 찌렀다.

“클레멘타인,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야. 점심이나 먹어라.” 바이올렛이 말했다.

클레멘타인은 어쩔 수 없이 접시 위에 놓인 샌드위치로 관심을 돌렸다. 음식을 몇 번 삼킨 후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가 쳐다보고 있었다.

“좀 줄까요?” 클레멘타인은 삼각형 모양의 샌드위치를 집었다.

“참 내, 고맙지만 내 것을 먹으마. 아니면 새로 하나 만들어 주던지.”

“뭘 드시겠어요, 바이올렛 고모?” 클라리사가 물었다.

“햄과 머스타드 소스 샌드위치에 토마토와 치즈를 곁들여다오. 아, 네가 잘 만드는 맛있는 계란 마요네즈도 넣어라.”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클라리사는 한숨이 나왔다. 고모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

이다.

“바이올렛 고모?”

“왜?”

“딕비 아저씨와 저는 오후에 할 일이 많아요. 고모가 모그 아주머니 가게 가서 물건 좀 사다주시겠어요? 그리고 어제 온 우편들도 가지고 와야 해요.”

“저도 갈게요. 라벤더에게 산책 시켜줄 수 있겠네요. 라벤더는 마을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해요.” 클레멘타인이 덧붙였다.

“난 별로 그러고 싶지 않구나. 무척 피곤하단다. 오늘 오후엔 휴식을 취할 계획이야. 바이올렛은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클라리사 내가가죠.” 딕비는 클라리사의 팔을 툭툭 두드렸다. 그는 몸 상태가 완전히 좋지는 않았지만 클라리사 귀부인이 이런 잔심부름을 직접 하는 건 옳지 않아 보였다.

“집사님은 저보다 할 일이 더 많을 텐데요.” 클라리사 귀부인은 반대했다.

“제발 바이올렛 고모,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해요.”

“그런 말투로 나에게 말하지 말거라, 클라리사.” 바이올렛은 호통 쳤다. 그녀는 손바닥을 이마 위에 댔다. “점점 머리가 아파오는 구나.” 하면서 일어섰다.

“어디 가세요, 고모할머니?” 클레멘타인이 물어봤다.

“내 방에 간다. 그리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녀는 뒤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점심준비가 다되면 내방으로 가지고 오너라. 클라리사, 그리고 차도 한잔 하고 싶구나. 이리 오렴, 파라오.”

바이올렛의 스프링크스 고양이는 그때까지 난로 앞 바구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파라오는 몸을 구부리며 크게 야옹 거리더니 라벤더가 있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선 아기 돼지의 얼굴 양쪽을 핥기 시작했다.

“으음, 내가 오라고 했잖아.” 바이올렛은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고양이를 노려봤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끔찍한 돼지가 널 전염 시켰구나.”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계단위로 쿵쿵거리며 올라갔다.

“라벤더는 끔찍하지 않아요. 클레멘타인은 할머니가 보이지 않자 작게 말했다. “끔찍한 건 고모할머니예요 .”

엄마와 덕비 아저씨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외출

점심 후 덕비 퍼츠위슬은 뒷문에서 클레멘타인과 라벤더를 만났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클레멘타인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분홍 코트를 입고 양모를 안감으로 댄 긴 포근한 부츠를 신고 있었다.

덕비 아저씨는 문 옆 선반에서 스카프와 코트를 집었다. 이들 셋은 클라리사가 건네준 목록을 가지고 마을을 향하여 출발했다.

“우편물 잊지 마세요.” 엄마가 그들 뒤로 소리쳤다.

정원은 조용했지만 마키 안쪽에서는 스모트 씨와 조수들이 장식을 하느라 북적거렸다. 이제 거대한 사자 석상 두개가 천막 입구를 지키고 있다.

“저것 좀 보세요.” 클레멘타인이 소리쳤다.

“어떻게 저런 게 여기 있죠?”

덕비 아저씨는 기증기를 신고 있는 작은 트럭을 가리켰다. “저걸 이용한 것 같구나.”

“결혼식준비 때문에 모두 힘들겠어요, 그렇죠?”

클레멘타인은 천막 안을 엿보려고 서성거리며 감탄했다.

“어서가자 클레미, 서둘러야겠다. 다녀와서도 해야 할일이 있단다.”

아저씨가 속도를 내며 걷기 시작하자 클레미와 라벤더도 따라잡기 위해 뛰었다.

클레미는 앵거스 파티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가게에 그녀 앞으로 온 우편물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강을 건너 교회를 지나 모그 부인 네 가게에 도착할 쯤에 덕비 아저씨는 완전히 숨이 찼다.

“괜찮으세요?” 덕비 아저씨가 가게 밖 의자에 털썩 앉자, 클레미는 물어봤다.

“괜찮다, 조금 피곤해서 그래.” 클레멘타인을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지었다.

클레멘타인은 라벤더의 목줄을 의자 다리에 묶었다.

딕비 아저씨가 문을 밀어서 열자, 작은 종이 딸랑딸랑 울렸다. 클레멘타인은 딕비 아저씨보다 먼저 따뜻한 온기 가득한 가게로 들어갔다. 오늘 가게에는 뜨거운 파이와 시나몬 향이 났다. 클레멘타인은 곧장 계산대로 갔고, 딕비 아저씨는 코트 주머니에서 클라리사 귀부인이 준 쇼핑목록을 꺼냈다.

마가렛 모그는 건물 뒷면에 붙은 집에서 걸어 나왔다.

“어서 오너라, 클레멘타인.” 모그 부인은 클레미를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그래 오늘을 뭐가 필요하니?”

“안녕하세요, 모그 아주머니. 딕비 아저씨가 쇼핑목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우편물을 갖고 올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클레멘타인은 중요한 걸 얘기 하듯이 말했다.

“물론이지.” 모그 부인은 계산대 뒤쪽에 우편함으로 향했다.

펜버디 플로스에는 집배원이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우편을 보관하기 위한 각자 우편함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 “참 이상하네.” 그녀는 빈 우편함을 들여다봤다. “아무것도 없구나, 클레멘타인.”

“클레미는 인상을 썼다. 앵거스의 바보 같은 생일파티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클레미는 가지 않을 작정이었고 결국 그렇게 되었다.

모그 부인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기억엔 클라리사 귀부인 앞으로 우편물이 오지 않은 날은 없었다. 클라리사 귀부인은 대회에서 늘 상을 받았고, 청구서 양 또한 엄청났다.

모그 부인은 다시 계산대로 걸어가서 클레멘타인을 쳐다보았다.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잘 되고 있어요. 마키를 다 세웠고요. 아, 그건 천막의 고급스런 이름이에요.” 클레멘타인은 설명했다. “그리고 스모트 아저씨가 텐트 안을 꾸미고 있어요. 두 마리의 거대한 사자도 입구에 세웠어요.”

모그 부인은 헉 하고 숨을 내쉬며 입에다 손을 갖다 댔다. “사자라고?”

“아,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돌로 만들어졌거든요. 딕비 아저씨가 결혼하는 사람과 상관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거기 국기에 사자가 있대요.” 클레멘타인이 설명했다.

“아, 맞다, 신랑이 스리랑카 사람이라고 네 엄마한테 들었어, 이제 이해가 되네.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을지 사리를 입을지 궁금하구나.” 모그 부인은 말했다.

“그게 뭐예요?” 클레멘타인은 물어봤다.

“사리는 아주 아름답단다, 클레미. 몸에 걸치는 드레스 종류지만 천에 수천 개의 반짝이가 달려있어 훨씬 더 정교해.”

“저한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클레멘타인은 물었다.

“힘들 거 같구나, 애야, 그 옷은 쉽게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니란다.”

“클레멘타인은 실망했다. 그녀는 드레스에 수천 개의 반짝이를 단다는 점이 맘에 들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클레멘타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조슈아와 그의 엄마를 보자 놀랐다.

“안녕하세요, 트리블 부인.” 모그 부인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모그 부인.” 트리블 부인은 대답했다.

조슈아는 계산대로 달려왔고, 온갖 종류의 과자가 있는 사탕 단지를 훑어보느라 클레멘타인이 옆에 서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조슈아의 엄마 역시 계산대로 왔다. “여기 판지 같은 것도 파나요? 우리 황태자 전하에게 화요일에 쓸 왕관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트리블 부인은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는 빨간 개구리가 들어있는 통의 뚜껑을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었다.

“앵거스 파티 때 쓸 거예요.” 조슈아가 말했다. “난 왕이 될 거예요.”

클레멘타인은 마치 누가 배를 세게 치는 것 같았다. 조슈아가 자신을 알아보기 전에 덕비 아저씨를 찾으러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클레멘타인, 너도 그 파티에 가니?” 모그 부인이 물어봤다.

클레멘타인은 재빨리 고개를 흔들었다.

“오, 안됐구나, 남자애들만 가는 파티가 분명해.” 모그부인은 말했다.

“아니요, 여자애들도 가는 거예요. 모두가 가는 걸요.” 조슈아는 클레멘타인을 보고 혀를 날름 거렸다.

조슈아는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걸 몰랐다. 조슈아 엄마는 아들의 어깨를 손으

로 세계 놀렸다.

“조슈아 트리블, 난 네가 도마뱀이 아니라 남자아인 줄 알았는데, 어서 사과해야지.”

이번엔 조슈아가 입을 다물었다. 엄마는 더 세계 어깨를 놀렸다.

“악” 조슈아는 투덜거렸다. “엄마 너무 아프잖아요.”

조슈아 엄마는 몸을 굽혀 그의 귀에다 뭔가 속삭였다.

“미안해” 조슈아가 말했다.

“안 들린다.” 트리블 아줌마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조슈아는 팔짱을 끼고 노려보며 말했다. “미안해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그 부인은 손을 마주 비볐다. “에헴, 자 그럼, 판지는 학용품 쪽에 있어요.”

“고마워요. 모그 부인.” 트리블 부인은 조슈아의 손을 잡고 가게 가운데로 갔다.

“근데 엄마가 사탕 사준다고 했잖아요.” 조슈아가 보챘다.

클레멘타인은 트리블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들을 순 없지만 조슈아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지난주에 예쁜 천이 새로 들어왔어. 구경할래, 클레멘타인?” 모그 부인은 웃으면 제안했다.

클레멘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가 여전히 아프지만 클레미는 가게 구석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모그 부인이 온갖 종류의 직물과 단추 그리고 실을 보관하고 있었다.

마을사람들 모두가 클레미의 패션 감각을 알고 있었다. 엄마는 클레멘타인의 패션 감감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아이는 빵 바구니에 담겨져 펜버디 하우스로 왔고 클라리사 귀부인이 입양했기 때문이다.

클레멘타인과 모그 부인 둘 다 예쁜 것을 좋아한다. 이 나이 많은 부인은 클레멘타인에게 많은 드레스와 여러 잡동사니들을 수 년 동안 만들어줬다. 모그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클레멘타인은 손녀나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존재였고 모그 부부는 이 아이를 무척 아꼈다.

“왜 그 뒤쪽에 계세요, 덕비?” “모그 부인이 소리쳤다. “제가 뭐 도울게 있나요?”

가게는 언제나 적당히 따뜻했으나, 오늘은 덕비 퍼츠위슬이 느끼기에 마치 용광로를 걷는 기분 이었다. 관자놀이에 작은 땀방울이 맺혔고 손등으로 얼른 땀을 닦아냈다.

“네, 고마워요 마가렛,” 그는 대답했다.

“레몬 색 비누 좀 찾아줄래요?”

몇 분 후, 모그 부인의 도움으로 덕비 아저씨는 쇼핑목록에 있는 물건을 다 찾았고 계산대에 서서 쇼핑백에 물건을 담고 있었다.

“괜찮아요, 덕비?” 모그 부인은 그의 얼굴빛이 꽤 심각한 회색으로 변했고 땀이 계속 나는 걸 알아차렸다.

“네, 여긴 좀 덥네요.” 덕비는 스카프를 빼서 이마를 닦았다.

“네, 몸조심 하세요. 클라리사 귀부인이 제일 바라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픈 거니까요. 부인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도와주러 간다고요. 그날은 클라이드가 가게를 보면 돼요.” 그녀는 가게를 보기보다 텔레비전 보기를 더 좋아하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켰다.

클레멘타인은 덕비 아저씨와 모그 부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다가갔다.

“맘에 드는 게 있니, 클레미?” 모그 부인은 물어봤다.

클레멘타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 파티 때문에 슬픈 거야?” 모그 부인은 계산대 쪽으로 몸을 숙이며 속삭였다.

“조금요.” 클레멘타인은 대답했다.

“신경 쓰지 말거라 얘야. 하고 싶은 데로 다 하는 사람은 없잖니, 그리고 이번 주말에 집에서 결혼식을 여는 곳은 너희 집 말고 없어, 그렇지?”

클레멘타인은 웃었다.” 네 맞아요. 전 땡땡이 빨간색 천이 맘에 들어요.”

“오, 역시, 이래야 우리 클레멘타인이지. 네가 그것을 좋아할 줄 알았다. 잘 가거라. 얘야.” 모그 부인은 덕비 아저씨께 몸을 돌렸다. “몸조심 하세요.” 덕비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내일 봐요 마가렛.”

긴급상황

한 검은색 승합차가 후진해서 주차하고 있을 때, 클레멘타인, 라벤더 그리고 딕비 퍼츠위슬은 진입로까지 걸어갔다.

“일찍 도착한 손님들이 있나보구나.” 딕비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클레멘타인과 라벤더를 따라가느라, 그의 몸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다.

하필이면 오늘 아픈 자신에게 화가 났다.

클레멘타인은 차에서 내리는 어두운 머리색을 한 남자에게 달려가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단다. 내 동생이 신랑이란다. 꼬마야 너도 결혼식 때문에 여기 왔니?”

그는 꼬마아가 신부가족의 친구인지 궁금해 하며 물어봤다.

“아니요, 전 여기에 엄마랑 딕비 아저씨와 라벤더와 함께 살아요.” 클레멘타인은 옆에서 코를 킁킁거리는 돼지를 가리켰다.

“오 그럼 넌 정말 행운아구나.” 남자는 대답했다.

“비 내릴 때만 빼고요.” 클레멘타인은 말했다.

남자는 클레멘타인을 알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나.”

클레멘타인은 지붕 새는 것을 얘기 하지 말라고 한 엄마 말이 기억나서 주제를 바꿨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 내 아내와 아이들이 위층에서 집을 풀고 있어. 애들이 널 보면 무척 신나 할 거다. 그리고 애도.” 그는 대답하며 몸을 숙여 라벤더의 머리를 긁었다.

“우리 애들은 이런 애완용 돼지를 본 적이 없을 거야.”

“라벤더는 미니 애완 돼지에요.” 클레멘타인은 말했다. “지금은 그 전보다

훨씬 커졌지만요”

“안녕하세요.” 덕비 아저씨는 쫓아오느라 숨을 헐떡거렸다. “펜버디 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덕비 퍼츠위슬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덕비 아저씨는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들고 있던 물건들도 사방으로 흩어졌다.

“덕비 아저씨” 클레멘타인은 소리쳤다.

손님은 재빨리 행동을 취했다. “엄마한테 구급차 부르라고 해라.”

클레멘타인은 울음을 터트릴 듯이 울상을 지었다.

“걱정마라, 난 의사선생님이란다.” 그는 클레멘타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이고 덕비 아저씨를 살폈다. 아저씨는 마치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

클레멘타인은 빠르게 계단을 뛰어올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엄마” 클레미는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소리쳤다. 엄마는 가스레인지에서 뭔가를 찻고 있었다.

클라리사는 뒤돌았다. “무슨 일이니 클레미?”

클레멘타인은 허둥대며 말했다. “덕비 아저씨가 밖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엄마가 응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전화기로 달려가서 구급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집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덕비 퍼츠위슬은 쓰러진 걸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머리를 들려고 할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다.

“퍼츠위슬 씨, 계속 누워있어야 해요.” 옆에 있는 남자가 설명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덕비가 손을 머리에 짚으며 물어봤다.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안돼요, 제가 지금 자리를 비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아저씨는 가슴이 죄여오는 것 같았고,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썩썩거리는 소리가 났다.

“오 다행이네요.” 클라리사 귀부인은 두 사람에게로 다가갔고 덕비 아저씨가 깨어있자 기뻐서 소리쳤다. “괜찮은가요? 구날링암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은 손목시계를 보면서 덕비 아저씨의 맥박을 짚었다. “글쎄요 깨어

나긴 했지만, 준비된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구급차는 오고 있나요?”

“네. 곧 도착할 거예요.”

“아저씨가 괜찮을까요?”

“그래, 괜찮을 거야. 위층으로 가서 고모할머니께 내려오시라고 해줄래? 덕비 아저씨와 함께 병원에 갈 사람이 필요해. 라벤더도 안으로 데려가고.” 클라리사 귀부인이 말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클레멘타인이 작은 돼지를 부르자 돼지는 뒤뚱거리며 따라왔다.

클레멘타인은 중앙계단으로 달려가서 삼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파란 방으로 곧장 들어갔다.

“바이올렛 고모할머니!” 클레미는 헉헉대며 말했다.

“노크할 줄도 모르냐? 새로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클레멘타인은 다시 문으로 뛰어가서 쿵쿵 두드렸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불평했다.

“독서하고 있던 거 안보이니?”

“덕비 아저씨가요, 밖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클레미가 급하게 말했다.

“엄마는 고모할머니가 아저씨랑 병원에 가주셨으면 한대요.”

“뭐라고? 그럼 진작 그렇다고 했어야지.”

클레멘타인은 혼란스러웠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바이올렛은 서둘렀다. 일어나서 바지의 주름을 펴고 표범무늬모양의 낮고 둥근 신발 속에 발을 밀어 넣었다.

클레멘타인은 고모할머니가 이렇게 빨리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어서 서둘러라, 뭘 기다리고 있는 게야?” 클레멘타인에게 물었다. “누가 부르러 와야 갈거니?”

두 사람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와 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덕비 아저씨가 바닥에 누워서 엄마가 거실에서 가져온 작은 담요를 덮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된 거니?” 고모할머니가 물었다. 그리고 덕비 아저씨를 쳐다보자,

아저씨도 눈을 크게 떠서 바이올렛을 쳐다봤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애플비양.”

“그나저나 어디가 아픈 건가요? 아니면 그냥 쓰러진 건가요?” 대답할 틈도 없이 바이올렛은 물어봤다.

클라리사는 아저씨와 의사선생님으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고모를 데리고 갔다.

“의사 선생님이 덕비 아저씨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클라리사 귀부인은 속삭였다. “클레멘타인을 겁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중 한 명은 병원에 가야해요.”

바이올렛은 불만스러운 듯이 입을 오므렸다. “왜 날 보니? 퍼츠위슬이 내 눈 앞에서 죽는 걸 보고 싶지 않구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고모가 갈 수 없다면 여기 남아서 손님들을 맞아주세요.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도착할거예요.” 클라리사는 설명했다.

바이올렛이 클라리사에게 이곳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하려는 순간, 구급차가 불빛을 반짝이고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로로 들어섰다.

클레멘타인은 덕비 아저씨 손을 잡고 옆에 앉아있었다.

덕비는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클레미. 난 괜찮단다.”

“그래도 전 덕비 아저씨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클레멘타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저씨는 클레미의 손을 꼭 잡았다. “클레멘타인, 그냥 검사받으러 가는 것뿐이야. 네가 보고 싶어 할 겨를도 없이 금세 돌아오마. 그리고 엄마와 바이올렛에게 결혼식 준비를 다 맡기고 갈 수가 없지, 그렇지?”

클레멘타인은 고개를 저었다. “안돼요, 고모할머니가 엄마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래 내 생각도 그렇구나.” 덕비는 동의했다.

응급구조원들이 덕비를 들것에 싣고 구급차 뒷좌석으로 옮겼다. 클라리사 귀부인은 바이올렛을 향해 돌아섰다. “고모, 신부와 신부 가족들이 곧 도착할거예요. 그리고 신랑과 그의 부모님도요. 여기 계신 다정하신 분은 구날링암 의사선생님이세요. 저희를 친절하게 도와주셨죠. 신랑의 형이기도 하고요.”

의사선생님은 덕비 아저씨를 살펴보다 얼굴을 들어 바이올렛에게 고개인사를 했다.

“의사선생님 사모님과 세 아이들이 위층에 있어요. 고모가 오후 차를 대접해 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피에르씨가 좀 전에 케이크를 배달해줬어요.” 클라리사는 바이올렛의 불평을 무시한 채 클레멘타인에게 포옹 하고선 구급차 뒤에 올라탔다.

“아, 방 배정 표는 부엌 찬장 위에 있어요. 모든 손님들이 배정받은 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해요.”

“의사선생님도 클라리사 귀부인 옆에 올라탔다. “제 아내에게 제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세요.” 그는 클레멘타인과 바이올렛에게 소리쳤다.

운전사가 뒷문을 닫고 앞쪽 좌석으로 뛰어갔다.

“아니, 그래도.” 바이올렛은 기가 막혔다. “클라리사, 나에게 일을 이렇게 떠넘기고 가면은 어떡하니? 난 손님맞이에 대해 아는 게 없단 말이다.”

클레멘타인은 고모할머니의 당황스러운 얼굴을 쳐다봤다.

“고모할머니는 병원에 안가잖아요.”

“난 손님맞이라고 했어, 클레멘타인 그게 무슨 말이나면… 관두자, 여기 뭐부터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네.”

“걱정 마세요 고모할머니. 라벤더와 제가 도울게요.” 클레멘타인은 고모할머니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의 귀에서 김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도착

구급차가 떠난 뒤, 클레멘타인과 바이올렛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바이올렛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어디가세요?” 클레멘타인은 물었다.

“다시 책 읽으러 간다.” 바이올렛이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가 말했잖아요, 의사선생님이 어디 있는지 부인에게 알려주라고요. 차도 드려야 하고요.” 클레미는 고모할머니께 다시 한 번 알려주었다.

“이런, 환장 하겠네” 바이올렛은 중얼거린 뒤, 쿵쾅대며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바이올렛은 클레멘타인을 따라 부엌으로 갔다.

“전 주전자를 불 위에 올릴 순 없지만, 케이크 놓는 일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클레멘타인은 말했다.

클레미는 찻장 위에 커다란 스펀지케이크가 놓여있고 그 옆에 피에르 아저씨네 초콜릿 칩 비스킷이 있는걸 보았다. 서랍장에서 접시들을 가져다 잘 정리된 소나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사람들은 여기서 차를 마실 게 아니야.” 바이올렛은 말했다.

클레멘타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선 잠시 생각했다.

“원하시면 전부 식당으로 옮길게요.”

바이올렛은 번거롭게 다른 방으로 옮겨야 하는지 고민했다.

“아니. 그 부인과 애들은 일손이 부족한걸 알면 이해할거다. 그냥 여기다 차려라.”

클레멘타인은 조심스럽게 케이크와 비스킷을 테이블 가운데에 놓았다.

“아래층으로 가서 그 손님들을 데리고 오너라.” 바이올렛은 달갑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고모할머니는 가스레인지에서 주전자를 내려 끓인 물을 찻주전자 속에 부었다.

클레멘타인은 뒤쪽 계단으로 뛰어갔다. 그 가족이 어디서 묵는 지 확실 치는 않지만, 일층 복도 끝 재스민 특실인 것 같았다. 거기에는 침실 두 개가 나란히 붙어있고, 클라리사 귀부인이 한 대회에서 상으로 받은 이층 침대를 최근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그 특실은 가족이 함께 묵기에 제격이었다.

클레멘타인은 문을 두드렸다. 길고 검은 머리의 배가 커다란 예쁜 여자가 클레멘타인을 반겼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멘타인이에요. 전 여기에 살아요. 의사선생님은 딕비 아저씨와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다고 엄마가 전해 달래요. 그리고 바이올렛 고모할머니와 제가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위해 차를 준비했어요.” 클레멘타인은 설명했다.

“저런,” 부인이 대답했다. “나도 궁금했어, 그이가 어디 갔는지. 사이렌소리를 들었지만 무슨 일인지 몰랐거든. 무슨 일이 생긴 거니?”

“딕비 아저씨가 쓰러졌어요. 괜찮은지 확인하러 다들 병원에 갔어요.” 클레멘타인은 설명했다.

옆방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클레멘타인은 누구인지 보려고 얼굴을 내밀었다.

“내 아이들이란다.” 부인이 말했다. “애들이 한 번도 이층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어서 무척 신이 났단다. 아라, 알리샤, 아카사라, 나와서 클레멘타인에게 인사해라.” 그녀가 아이들을 불렀다.

세 아이들은 클레미가 본 가장 아름다운 갈색 눈을 반짝이며, 문 앞에서 머리만 내민 채로 손을 흔들었다.

클레멘타인은 애들이 하나, 둘, 셋 얼굴을 드러내자 킁킁거렸다.

여자애들은 엄마에게 곧장 달려와서 치마 뒤에 숨었다. 그러나 어린 남자애는 문 앞에 있었다. “애들은 원래 부끄러움을 타지 않아.” 부인은 몸을 숙여 아이들을 바라봤다.

“아래층으로 갈까요? 클레멘타인이 물어봤다. “우리가 초콜릿 칩 비스킷과 피에르 아저씨가 만든 스펀지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아저씨가 만드느 빵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음식이라는 소리에 여자아이들이 나와서 인사를 했다. 꼬마남자아이도 뛰어와

서 같이 인사했다. 클레멘타인은 이 가족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고모할머니가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르티카입니다.” 부인은 자신을 소개했다. “여기는 다섯 살인 아라, 세 살 알리샤예요. 그리고 애는 아크사라예요. 두 살입니다. 이 꼬마 녀석은 아샤고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카르티카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바이올렛은 그 가족을 올려다보았다. “네, 반갑다고 해둡시다.”

“여기는 바이올렛 고모할머니예요.” 클레멘타인이 끼어들었다. 바이올렛은 스펀지케이크 한 조각을 커다랗게 잘라 접시 위에 펍하고 내려놨다. 클레멘타인은 고모할머니가 왜 이렇게 짜증을 부리는지 알 수 없었다. 다행이, 이 사람들은 초인종이 울리는 바람에 신경 쓰지 않았다. “제가 나갈게요.” 클레멘타인은 자기가 나가보겠다고 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나가봐라. 난 바쁘거든.” 바이올렛이 클레멘타인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노인네 같으니라고. 제발 퍼츄위슬이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사람 없이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네.”

적수를 만난 바이올렛

클레멘타인은 현관문을 열었다. 세 사람이 계단에 한데모여 있었다. 한 부부는 클레멘타인의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덕비 아저씨보단 젊어보였다. 그리고 매우 예쁜 젊은 여자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클레멘타인은 인사했다.

“우리는 여기에 결혼식 때문에 왔단다.” 이 남자 손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얘기했다. 그는 왜 어린아이가 자신들을 맞이하는지 궁금했다.

“제 이름은 클레멘타인이에요. 들어오세요.” 클레미는 말하면서 손님을 맞이할 때 엄마가 늘 하던 말을 정확히 기억하려고 했다.

세 사람은 복도로 걸어가다, 클레미가 막 현관문을 닫으려고 할 때 젊은 여자가 뒤를 돌아보았다.

“오빌 할아버지” 그녀는 억양 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오빌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헥터,” 부인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가서 당신 삼촌 좀 찾아봐요, 지금당장!”

클레멘타인은 뛰었다. 젊은 여자와 헥터도 뛰었다. 그는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 삼촌을 찾았다. 젊은 여자는 클레멘타인을 보고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와 덕비 아저씨는 의사선생님과 병원에 가셨어요. 의사선생님은 신랑의 형이에요. 덕비 아저씨가 쓰러졌을 때 선생님이 계셔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고모 할머니와 함께 모두를 돌보고 있어요.”

“오, 저런 안됐구나.” 젊은 여자가 말했다. “내 이름은 해리엇 폭스야.”

“헉!” 클레멘타인은 숨이 터 막히는 소리를 냈다. “이 결혼식의 신부군요.”

엄마가 이름을 말해줬어요.”

해리엇은 활짝 웃었다. “응, 맞아”

“전 드레스가 무척 보고 싶어요.” 그리고 천막은 굉장히 아름다울 거예요.” 클레멘타인은 재잘거렸다.

나이든 여인이 대화를 끊었다. “물론, 당연히 예쁘겠지, 내 딸인데. 그리고 천막이 아닌 마키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네가 고모할머니를 불러오면 난 방에 있고 싶구나. 우리 먼 길을 운전하고 왔거든.”

해리엇 폭스는 엄마를 결눈질하고는 클레멘타인을 향해 비밀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네 알겠어요.” 클레멘타인은 부엌으로 행진하듯 걸어갔다. 신부들이 이상하게 마키에 집착한다는 덕비 아저씨의 말이 맞았다. 뭐 사실 신부 엄마들이 더 그렇지만.

한편, 바이올렛은 방 배치 목록을 들여다보면서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빨간색 펜을 손에 잡고 본인이 직접 방을 배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바이올렛 고모할머니,” 클레멘타인이 불렀다. “폭스 씨네 가족들이 왔어요.” 그러고선 클레멘타인은 키득거렸다, “닭들을 숨겨주세요.”

“뭐? 무슨 닭 말이냐?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바이올렛은 클레멘타인을 무시하는 말투로 물어봤다.

구날링암 부인은 웃었고 아라 역시 웃었다. 부인은 윙크를 하며 말했다. “난 알 아들이었어.”

바이올렛 애플비는 성큼성큼 걸어서 부엌을 지나 입구 쪽으로 향했다.

“저도 가 봐야겠어요.” 클레멘타인은 마지못해 하며 말했다. “고모할머니는 항상 손님에게 도움이 안돼요.”

구날링암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이올렛과 잠시 함께 있어본 뒤라 그녀는 클레멘타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복도에서 고모할머니를 따라잡았다.

“바이올렛 애플비입니다.” 그 모녀를 보자 바이올렛이 말했다. 그녀는 더 볼 것도 없이 그들이 누군지 알 것 같았다.

“만나서 반갑네요, 애플비 양.” 해리엇 폭스가 손을 내밀었으나 바이올렛은

완전히 무시했다.

“여러분의 방은 이층에 있어요. 제가 좀 확인해보죠. 바이올렛은 플라스틱 클립보드에 붙어있는 방배정표를 빠르게 훑었다 “폭스 부부의 방은 모란 특실이고 해리엇 당신은 장미 방이네요.”

“오빌 삼촌은 어디죠?” 로버타가 물어봤다.

바이올렛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빠르게 명단을 훑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없네요.” 그녀는 들고 있는 종이 위에 펜을 툭툭 두드렸다.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로버타 폭스는 씩씩대며 말했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녀는 바이올렛의 손에 있는 클립보드를 낚아채려고 했다.

바이올렛은 클립보드를 꼭 끌어안았다.

“이리 내요.” 로버타는 클립보드를 잡아 당겼다. 바이올렛은 굉장히 화난 얼굴을 하고 그녀를 보았다. “안됩니다.”

“당신의 조카가 가족이 함께 묶을 수 있다고 했고 오빌 삼촌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클라리사가 그를 어느 방에 배정했는지 봐야겠어요.”

바이올렛은 클립보드를 꼭 쥐고 놓지 않았다.

“이것 좀 보라.” 로버타 폭스는 바이올렛 어깨너머로 명단을 봤다. “이젠 또 삼촌이 아빠랑 같은 방이네.”

바이올렛이 몸을 돌린 순간 로버타 폭스는 클립보드를 그녀의 손에서 낚아챘다.

“뭐하는 짓이에요?” 바이올렛은 놀라서 입이 벌어졌다.

로버타는 그 명단을 빠르게 훑었다. “당신이 방 일부를 창의적으로 재배치한 것 같은데요, 애플비양. 당신의 조카가 이것을 알 때까지 잠시 기다리죠.”

“여긴 내 집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넣을 수 있다고요.” 바이올렛은 씩씩거렸다.

로버타 폭스는 화난 수달처럼 자신의 코를 찡그렸다. “가서 따끈따끈한 차를 만들어 오는 게 어때요? 우리 방을 찾는 건 여기 이 꼬마가 도와 줄 수 있네.”

“그렇게요.” 클레멘타인은 동의했다.

바이올렛은 화가 나서 부엌으로 쿵쾅거리며 걸어갔다.

현관문이 열리고 폭스 씨가 오빌 삼촌을 이끌고 마침내 나타났다. 이 노인은 중절모를 쓰고, 조끼를 걸친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할아버지 얼굴에 다리미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는 많은 잔주름이 있었다.

“오빌 삼촌 방은 수선화 방이네요,” 폭스 부인이 말했다.

클레멘타인은 한숨을 쉬었다. “근데 거기는 내방인걸요.” 클레멘타인은 엄마가 언제 이것을 말해줄 생각이었는지 궁금했다.

“자 그럼, 우리 가볼까요?” 헥터가 물었다. 그는 갑자기 결혼식 파티에 대한 흥미를 잃은 클레멘타인을 쳐다봤다.

클레멘타인은 사람들을 위층으로 안내했다. 먼저 해리엇에게 장미 방을 보여주자 그녀는 방을 무척 맘에 들어 했다. 특실인 모란 방은 복도를 따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 다음 클레멘타인은 오빌 할아버지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야만했다. 클레멘타인은 방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다. 자신의 물건 대부분이 치워져 있었고 옷장까지도 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실수로 그랬을 리가 없었다. 엄마는 클레미의 방까지도 내주기로 철저히 계획한 것이었다.

“방이 맘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클레멘타인은 툭툭거리며 말했다. 클레미는 라벤더의 바구니도 찾아봤지만 그것 역시 없었다. “이 결혼식은 바보 같아.” 클레멘타인은 혼자 중얼거렸다.

“고맙구나, 꼬마야.” 할아버지는 말했다. 그는 클레멘타인을 향해 자상한 미소를 지었다. “방이 아주 예쁘구나.”

“네, 알고 있어요.” 클레멘타인은 딱 잘라 대답했다 “내방이니깐요.”

“아니, 아니 얘야, 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단다. 난 괜찮아.”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여행 가방을 풀기 위해 침대에 놓았다.

클레멘타인은 방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다. 자신의 방을 내주는 것에 대해 짜증을 내지 말아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엄마가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클레미는 생각했다. 그리고 왜 자기 방 대신 고모할머니 방을 내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했다. 클레미는 엄마의 침실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손잡이를 돌려 안을 들여다봤다. 자신의 책가방, 인형의 집이 보였고, 방구석에는 모든 인형들이 쌓여 있었다. 옷장도 열어보았다. 엄마는 클레멘타인의 옷을 다 걸어놓았으

며 라벤더의 바구니는 그 아래에 있었다. 매트리스 하나가 엄마의 침대 발치에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방구석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있는 것도 보였다.

아래층에서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다. 클레멘타인은 종종걸음으로 아래층에 내려가다 문득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파라오나 라벤더를 못 본지 오래됐던 것이다. 애완동물들이 손님들 방 중 한 곳에 갇혀있으면 엄마가 싫어할 것이다.

클레멘타인은 현관문을 열었다. 잘생긴 젊은 남자가 계단에서 있었다. “안녕?” 남자가 인사했다. “신랑인 라이언이야.”

“안녕하세요.” 클레멘타인은 클럽보드를 자기 앞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뭔가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어느 방이신지 확인 해드릴까요?” 그녀는 물었다. “저는 글자를 잘 못 읽어요. 고작 다섯 살이거든요.”

라이언은 종이를 가져가서 빠르게 훑어봤다.

“여기 있네, 난 파란 방에 머무는구나.”

“파란 방이요?” 클레멘타인은 긴장하며 말했다.

“거긴 바이올렛 고모할머니 방인데요.”

“뭐라고? 무슨 착오가 있는 거니?” 라이언이 물었다.

클레멘타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방이 있는 곳을 안내해드릴게요.” 클레미는 꽤 기쁜 마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만약 클레미가 자신의 방을 내줘야만 한다면 고모할머니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혼식 참석자들이 모두 방을 배정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신랑의 부모님이 도착했다.

클레멘타인은 여전히 차를 만들고 있는 고모할머니의 도움 없이도 사람들에게 방을 안내했다.

클레멘타인은 모든 사람을 부엌으로 초대했다. 물론 폭스 부인은 전혀 내켜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아는 듯 보여서 바이올렛은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잡담 나누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다.

파라오와 라벤더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세 아이들을 활발히 쫓아 다니는 걸 보자, 클레미는 기분이 좋았다.

“클레멘타인, 아이들과 라벤더를 정원으로 잠시 데리고 가는 게 어떨겠니?”
바이올렛은 짜증을 내며 말했다.

“오,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카르티카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밖이 점점 더 추워져서요.”

“저는 제안을 한 게 아니에요.” 바이올렛은 말했다.

“가서 코트를 가지고 올까 우리?” 카르티카는 말했다.

전화벨이 울리자 클레미는 뛰어가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펜버디 하우스입니다.” 클레멘타인은 엄마에게 배운 대로 전화를 받았다. “와, 엄마예요? 덕분에 아저씨는 괜찮아요?”

클레미의 엄마는 전화너머로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 있니, 클레미?” 엄마가 물었다.

“오후 차를 마시고 있어요.” 클레미가 대답했다.

“부엌에서?” 엄마가 물었다.

“네. 고모할머니가 응접실이나 거실에서 대접하는 건 힘들다고 했어요.”

“오 맙소사!” 클라리사 귀부인은 호들갑을 떨었다.

“거기사람들은 우리 집에 머무는 비용으로 큰돈을 낸단다. 손님들은 부엌에서 차를 마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야.”

“네, 폭스 아주머니가 매우 화가 났었어요.” 클레미는 폭스부인이 듣지 못하도록 조용히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방을 찾았니?” 클라리사는 물어봤다.

“네.” 클레멘타인은 대답했다.

“클레미, 네 방을 옮기게 해서 미안하다. 마지막에 계획을 바꿨는데 너와 고모한테 말할 시간이 없었어. 고모가 많이 화나셨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모할머니와 폭스 아주머니가 싸웠어요.” 클레미는 설명했다.

클라리사 귀부인은 끄 하는 소리를 냈다. “엄마가 최대한 빨리 갈게. 고모할머니께 오븐에 양다리 좀 넣어달라고 말해줄래? 감자 껍질도 벗겨야 하고, 감자는 싱크대 위에 있단다. 모그 부인이 곧 도착할거야. 저녁 준비 도와달라고 전화했거든.”

“딕비 아저씨는 괜찮아요?” 클레미는 다시 한 번 엄마에게 물어봤다.

“잘 모르겠구나.” 엄마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주 정성껏 간호를 받고 계셔.”

클레멘타인은 갑자기 아픈 느낌이 들었다. 이제 엄마와 방을 함께 쓰거나 고모 할머니랑 함께 쓰더라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저 딕비 아저씨가 나아서 집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이었다.

결혼식 전날

클레멘타인은 전화를 끊고 고모할머니께 엄마가 지시한 것들을 조용히 전했다. 바이올렛은 자신이 저녁 식사 준비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 건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즉시 오후 차를 치우려고 했다.

“아직 차를 마시는 중이잖아요.” 로버타 폭스는 기가 막혀 하며 말했다.

바이올렛이 아직 남아있는 로버타의 케이크 한 조각을 치우려 하자, 는 자신의 컵을 째 쥐었다.

“좀 더 빨리 먹는 게 좋을 겁니다. 폭스부인.” 바이올렛이 말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거든요.”

“당신이 차를 거실에서 대접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애플비양.” 로버타는 바이올렛에게서 자신의 케이크 접시를 잡아당겨 쿵 소리를 내며 탁자 위에 놓았다. 바이올렛은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로버타가 옳다고 조금도 인정 할 수 없었다.

“딴 데 가서 놀아라, 클레멘타인.” 바이올렛은 말했다. “어린 꼬마아이들도 밖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것은 클레멘타인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고모할머니와 말씨름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클레미는 뒷문 옆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가져와 부츠를 신은 후 세 명의 아이들을 정원으로 안내했다. 라벤더가 그들 뒤를 바짝 쫓아갔다.

“애는 너무 사랑스러워.” 알리샤는 몸을 구부려서 돼지를 굶으며 클레멘타인에게 말했다.

“응 맞아.” 클레멘타인은 동의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웃을 수가 없었다. 덕비 아저씨가 몹시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는 모그 아주머니네 가게에서 본 조슈아에 대한 안 좋은 기억도 있었다. 조슈아는 앵거스의 생

일 파티로 인해 매우 들떠 보였다.

“너 슬프니?” 아리아가 물었다.

클레멘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딕비 아저씨는 이제까지 아픈 적이 없어.”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앵거스의 바보 같은 파티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걱정 마. 우리 아빠는 고장 난 심장을 고치는데 전문가야. 아빠가 분명 너희 아저씨를 고칠 수 있을 거야. 아리아는 클레멘타인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아리아는 손을 뺀 후 클레멘타인의 손을 잡았다.

클레멘타인은 손을 잡고 물었다. “정말?”

“응, 정말이지.” 아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엄마가 말해줬는데 아빠가 치료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포에버’ 학교에 들어갔대.”

클레멘타인은 말만 들어도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너희들 정원 구경할래?”

“좋아.” 모두가 한 목소리도 대답했다. 클레멘타인은 딕비 아저씨와 병원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스모트 아저씨가 마키 안을 다 꾸며냈는지 보러가자.” 클레멘타인이 말했다.

“마키는 천막의 고급 이름이야.” 클레멘타인은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고 있는 두 아이에게 말했다.

아크사라는 앞장서서 뛰어가다가 입구를 지키는 사자를 보자 도로 뛰어왔다. 아크사라의 눈은 커져있었다.

“괜찮아.” 클레멘타인은 아크사라를 안심시켰다.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 클레멘타인은 문 앞에 걸려 있는 무거운 천을 걷었다. 아크사라는 발끝으로 살금 살금 걸어서 사자 옆을 지나갔다.

클레멘타인은 안에 장식들을 보고 탄성을 질렀다. “스모트 아저씨는 마술사야.” 천장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은은하게 빛나는 은색 천이 걸려 있었고, 커다란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중앙에 달려 있었다. 의자의 등받이는 나비 리본으로 포장된 선물 같았고, 테이블에는 반짝이는 은 식기와 은색 테두리를 댄 하얀 접시가 놓여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마키 너머에 있는 마술사를 지켜보고 그에게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스모트 아저씨.”

“안녕 클레멘타인, 자 여기 어따니?”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양팔을 뻗었다.

“아름다워요” 클레미가 감탄했다.

“하지만 아직 꽃이 도착하지 않았어.” 그는 양손을 비볐다. “꽃을 보려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해.”

“엄마가 저는 마키 안으로 고개만 내밀 수 있다고 했어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참석 할 거예요.” 클레미는 자신의 옆에 서있는 아이들을 가리켰다. “애들 삼촌이 결혼해요.”

“그래, 즐거운 시간 보내라, 애들아.” 스모트 씨는 말했다. “그럼 내 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아카나라가 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커요.”

여자애들은 킬킬거렸다.

“그래 크지, 그렇지? 신랑은 사자들이 맘에 든다고 하더구나.” 스모트 씨가 말했다.

아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빠 남동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빠도 좋아해요.”

“자, 너희들은 가는 게 좋겠다. 난 집에 가서 성에 페인트칠을 해야 해.” 스모트씨 가 말했다.

“성이라고요?” 클레멘타인은 숨이 턱 막혔다. 펜버디 하우스도 충분히 큰데, 성안에 사는 것은 어떨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성에 페인트 칠 하세요?” 아라가 물었다.

스모트 씨는 놀라는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봤다. “아니, 난 진짜 성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아니란다. 나의 대자가 다음 주에 생일파티를 하거든, 그래서 내가 작은 성을 만들어주기로 했단다.”

클레멘타인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스모트 아저씨가 앵거스의 대부인지 궁금했다. 만약 아저씨가 생일파티를 연다면 확실히 놀랄 일이었다. 이제 클레멘타인은 더더욱 파티에 가고 싶어졌다.

“좋아. 밤 동안 문을 잠가야겠다.” 스모트 씨는 입구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클레멘타인은 어떻게 문을 잠그겠다는 건지 궁금했다. 천막에는 제대로 된 문

이 없기 때문이다.

“아저씨는 문을 잠글 필요 없어요.” 아라가 말했다.

“왜?” 스모트 씨가 물었다.

“사자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아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스모트 씨는 웃었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리고 돼지도 있어요.” 클레멘타인이 덧붙였다. 라벤더는 두 마리의 사자상 사이에 앉아있었다.

“라벤더는 경비돼지에요.” 알리샤가 킁킁 웃었다. 라벤더는 마치 그 말이 맞다는 듯이 킁킁거렸다.

아이들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집안으로 돌아왔다. 클레멘타인은 앵거스의 생일파티는 잊어버리고 결혼식만 생각하며, 새로 사귄 세 친구들과 노는 것이 최선이라고 마음먹었다.

구날링암 부인은 뒷문에서 아이들을 보고, 샤워를 시키기 위해 바로 위층으로 데려갔다.

안에서는 마가렛 모그 부인이 가스레인지에서 육수를 젓고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발꿈치로 서서 구경했다. “모그 아주머니가 오셔서 기뻐요.”

“손님들을 배고프게 놔둘 수 없잖아, 그치?” 모그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소스가 들어있는 프라이팬에서 나무 손가락을 빼내고, 오븐을 열어 양고기를 확인했다.

클레멘타인은 콧구멍을 쉴룩거렸다. “냄새가 정말 좋아요. 엄마가 집에 왔어요?”

“좀 전에 전화 왔었어. 바이올렛 고모가 엄마와 의사선생님을 태우러 갔어.” 모그 부인이 설명했다.

“다행이네요.” 클레멘타인은 말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두 사람은 대화를 멈췄고 클레멘타인은 복도로 뛰어갔다.

“엄마!” 클레멘타인은 엄마 허리를 와락 안았다. 이유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몸을 떨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오 클레미, 아가야, 왜 그러니?” 클레미의 엄마가 무릎을 구부리자 바위에

매달린 꽃처럼 엄마에게 달라붙었다.

“자알-모-몰라요,” 그녀는 울음을 삼켰다.

“클레미, 덕비 아저씨는 괜찮을 거야. 걱정 말아라. 아저씨는 네가 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클라리사 귀부인은 클레미의 젖은 얼굴위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어 주었다.

“엄마도 알고 있단다. 네가 결혼식으로 정신없고 덕비 아저씨 걱정 때문에 오늘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낼걸. 내일이면 다 괜찮아 질 거야.”

클레멘타인은 조슈아를 봐서 기분이 나빴던 일, 스모트 아저씨에서 앵거스 생일파티애길 들었던 일, 자신의 방을 내줘야 해서 화가 났던 일, 그리고 고모할머니가 평소보다 더 짜증을 부린 일은 얘기 하지 않았다. 클레멘타인은 자신이 어리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기 때문이다.

“어서가자 클레미, 세수하고 우리 저녁식사 해야지. 모그 부인이 정신없으실 거야. 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클라리사는 일어섰다. 클레멘타인은 엄마 손을 잡고 아래층 화장실로 갔다. 클레멘타인은 얼굴에 물을 끼얹고 눈물을 씻어냈다.

“고모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클레멘타인은 코를 훌쩍거리며 물어봤다.

“고모는 짐을 옮기러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셨어. 오늘밤 덕비 아저씨 방에서 주무셔야 하니깐. 차에서 고모 방도 내줘야 한다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더라. 그래도 덕비 아저씨가 안 계시니 고모가 아저씨 방을 쓰게 됐어. 그런데 고모가 생각보다 짜증을 덜 내시더라. 아마 구날링암 의사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그런 것 같아. 나중에 손님들이 가고 나면 한소리 듣겠지.”

클레멘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말이 맞을 것이다.

아무도 복도 탁자 위에 편지 더미가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 바이올렛이 클라리사와 의사선생님을 데리러 가기 위해 막 집을 나설 때, 밥 신부님이 편지뭉치를 들고 문 앞에 나타났다. 그 편지들은 신부님의 우편물 속에 섞여있었고 그는 그 편지들을 발견해서 매우 놀랐다. 왜냐하면 모그 부인이 우편물에 관해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모그 부인이 목요일 오후에 남편에게 가게를 맡기고 펜버디 하우스에 도우러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남편 클라이드는 꼼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밤의 공포

클라리사 귀부인은 부엌 시계를 바라보았다. 이미 밤 열두시가 지나있었고, 그녀는 방금 설거지를 끝낸 후 마가렛 모그를 돌려보냈다. 다행히도 저녁 식사는 무사히 끝났고 손님들도 즐겁게 보낸 것 같았다. 로버타 폭스가 확실히 까다롭긴 했으나, 클라리사는 신랑과 신부가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클라리사는 바이올렛이 껌병을 부리며 자신의 방으로 일찍 들어가자 기뻐했다. 그날 고모가 사람들에게 이미 폐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클라리사는 더 이상 고모 때문에 고모침실을 쓰는 손님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오싹할 정도로 조용해지자, 클라리사 귀부인은 덕비 아저씨가 괜찮은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아저씨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 오랫동안 자신의 아버지만큼이나 덕비 아저씨에게 의지해 왔기 때문이다.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클라리사는 덕비 아저씨가 잘못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머리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당연히 별일 없어야 했다.

한편 위층에서는, 바이올렛이 자기 전에 마시지 못한 차를 마시려고 일어났다. 그녀는 어둠 속을 바라봤다. 잠시 후에 자신이 퍼츠위슬의 침실로 쫓겨 난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 방에는 욕실이 딸려 있었다. 전혀 나쁜 방이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방과 바꾸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들어갔고 굳이 불을 켜지 않았다. 복도 멀리 떨어진 방에 있던 오빌 폭스 역시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그는 가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은 후 복도를 따라 화장실로 갔다. 몇 분 뒤에 그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방으로 돌아갔고, 문을 여는 순간 발가락을 찌었다. 그는 자신이 잠시 나간 사이에 누가 나무로 된 여행 가방을 자신의 방에 두고 갔는지 궁금했다.

오빌은 앉아서 슬리퍼와 가운을 벗었다. 그는 베개의 높이를 잘 맞추고 옆으로 돌아눕고선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클라리사가 마지막 냄비를 닦았을 때였다. 집안 높은 곳 어디선가 들려온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에 창문이 흔들렸다. 그녀는 달가닥 소리가 날 정도로 냄비를 의자 위에 던져 놓고 두 계단씩 밟아 위층으로 올라갔다.

클레멘타인은 깜짝 놀라 일어났고, 침대에서 뛰어 내려 복도를 따라 덕비 아저씨 방으로 뛰어갔다. 방 안에서 끔찍한 소리가 났다. 문을 열고 불을 켰을 때, 클레미는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랐다.

“고모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클레미는 숨을 헉헉거렸다. 클라리사 귀부인도 뒤 이어 방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바이올렛 애플비는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만큼이나 하얗으며, 마치 콘센트에 손을 집어넣은 것처럼 머리끝이 쭈뼛 서있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뭔가를 말하려는 듯이 보였다. “엄마, 고모할머니 침대에 어떤 남자가 있어요!” 클레멘타인이 소리쳤다.

“이 사람을 어서 내보내!” 바이올렛은 비명을 지르며 검지 손으로 침입자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어서 내보내라고, 당장!”

그러나 오빌 폭스는 깊이 잠이 들어있었다. 이 남자는 분명 태풍이 지나가도 잠을 잘 사람이었다. 바로 바이올렛 태풍이 지나가도 꼬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란

클레멘타인은 눈을 비볐다. 잠시 동안 자신이 어디에 와있는지 잊고 있었다. 얼마 뒤에 클레멘타인은 엄마의 커다란 침대 발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클레미는 창문에 후드득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엄마” 클레멘타인은 엄마를 불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클레미는 일어나 앉아 엄마의 침대가 이미 정리된 것을 보았다.

클레멘타인은 이불을 걷어내며 몸을 떨었다. 라벤더와 파라오는 난로 옆 라벤더바구니 속에 서로 끌어안고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가운을 집어 들어 털로 된 슬리퍼를 신고서 복도를 따라 뒤쪽 계단으로 갔다. 클레미가 자신의 방을 지날 때, 문이 열리고 오빌 폭스가 나왔다. 그는 지난 밤 사건이후에 방에 가만히 있었던 게 틀림없다.

지난 밤 바이올렛의 비명을 듣고 집안사람 절반이 방으로 뛰어왔었다. 결국 폭스씨와 구날링암 선생님이 오빌 삼촌을 클레멘타인의 방으로 데려 가서야 바이올렛은 훨씬 안심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 방어벽을 치겠다고 했다.

오빌 삼촌은 클레멘타인을 쳐다봤다.

“안녕, 꼬마야?” “안녕하세요? 폭스 할아버지” 클레멘타인은 인사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그래. 그런데 아주 끔찍한 꿈을 꿴단다. 한 사나운 여자가 마녀처럼 쇠리를 지르는 꿈이었단다.”

클레멘타인은 할아버지가 왜 혀가 꼬인 채 이야기 하는지 궁금했다.

“오늘 결혼식에 우리랑 함께 갈거니?” 할아버지가 물었다.

클레멘타인은 결혼식을 거의 잊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다. 물론 폭스할아버지는 결혼식 때문에 옷을 제대로 차려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늙고 기운이 없어 보여도, 매우 멋쟁이였다.

“옷이 멋져요.” 클레멘타인은 할아버지 줄무늬 양복과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멋진 실크 손수건을 보며 감탄했다. “그런데 신발은 바꿔 신어야겠어요.” 폭스 씨는 자신의 슬리퍼 신은 발을 내려다보았다. “오, 이런!” 그는 뒤돌아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사실 난 꽤단사란다”

“정말요?” 클레멘타인은 할아버지가 대단하다고 느꼈다 “제 옷은 모두 모그 아주머니가 만들어 줘요. 아주머니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양복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클레멘타인은 할아버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클레멘타인은 침대 옆 탁자를 바라보았다. 물이 든 유리잔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다. “폭스 할아버지, 뭔가 또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클레미는 말하며 유리잔을 가리켰다.

“오! 고맙구냐.” 폭스 할아버지는 발을 끌며 유리잔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틀니를 입안에 넣고 클레멘타인에게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클레멘타인 또래의 아이들은 가짜 치아를 보고 놀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클레멘타인은 집에서 여러 번 그것을 본적이 있었다. 사실 클레미는 몇몇 손님들이 두고 간 가짜 치아를 가지고 있었다. 클레미는 때때로 치아들과 이야기하며 놀아서 엄마와 덕비 아저씨를 매우 경악하게 만들었다.

“매우 멋져요, 폭스 할아버지.” 클레멘타인은 폭스 할아버지에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가 있으니 훨씬 좋아요.”

클레멘타인은 폭스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아래층 계단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엄마와 모그 아주머니를 발견했다. 바이올렛은 잘 차려 입고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잘 잤니? 잠꾸러기.” 엄마는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다. 9시 30분이었다.

“반나절이 지났다.” 고모할머니는 말했다. “어서 가서 옷 갈아입고 오는 게 어때냐? 네가 여전히 결혼식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네. 물론이에요.” 클레멘타인이 대답했다.

모그 부인이 오븐을 열자 부엌 한가득 베이컨 냄새가 났고, 부인은 튀김옷을 입힌 베이컨을 접시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응접실로 빠르게 걸어갔다.

“먼저 뭐 좀 먹을래, 클레미?” 엄마가 물었다. 클레멘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클레멘타인의 배 속은 갖가지 이상한 소리들이 났다.

“계란과 베이컨을 얹은 토스트 어떠니?” 엄마가 제안했다.

“네. 좋아요.”

클라리사 귀부인은 고모를 향해 몸을 돌렸다. “바이올렛 고모, 오늘 아침에 덕비 아저씨 보러 가주세요. 밤에는 제가 가볼게요.” 클레멘타인은 덕비 아저씨가 오늘 집에 오길 바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니.” 바이올렛은 짧게 대답했다. “무척 피곤하구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도 있잖니.”

“하지만 그것은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요.” 클레멘타인이 말했다.

“당연히 엄마 잘못이지.” 바이올렛은 말을 끊었다. “만약 네 엄마가 잠금 장치에 좀 더 신경 썼더라면 그 끔찍한 인간과 내가 만나는 일은 없었을 거다. 그나저나 그 사람은 이가 없더구나.”

클라리사 귀부인은 대화 주제를 바꿨다. “그러면 바이올렛 고모, 오전에 모그 아주머니를 도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곧 출장요리사들이 도착해요. 다행히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오븐에 음식을 데우기만 하면 돼요.”

“난 너무 피곤하다고, 클라리사.” 바이올렛이 말을 막았다. “그리고 너는 마을 사람들 절반이나 고용했잖니. 내가 왜 거기에 꺼야하냐?”

클라리사는 물려서지 않았다. “바이올렛 고모, 덕비 아저씨가 병원에 있는 한 우리는 사람이 부족해요.”

“글쎄, 우리가 바쁠 때 그가 요령 피우는 것 같구나.” 바이올렛은 불평했다.

클레멘타인은 조금씩 화가 났다. “덕비 아저씨가 여기 없는 건 다 고모할머니 때문이에요.”

“다시 한 번 말해 볼래, 꼬마 아가씨?” 바이올렛은 클레멘타인을 찌렷다.

“고모할머니가 어제 오후에 아저씨와 나에게 상점에 다녀오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아저씨는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아저씨는 고모할머니 때문에 아픈 거예요” 클레멘타인이 계란과 베이컨이 든 접시를 세게 미는 바람에 베이컨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감히 네가 어떻게?” 바이올렛의 입술이 떨렸다. “난 그런 적 없다, 클레멘

타인.” 바이올렛은 일어서서 곧바로 뒤 계단으로 향해 걸어갔다.

클레멘타인은 울기 시작했다. 한 번도 이렇게 감정이 뒤죽박죽 섞인 적이 없었다. 어느 순간 매우 신이 나다가도 바로 다음엔 덕비 아저씨가 매우 걱정됐고, 앵거스의 생일파티에 초대받지 못해 슬펐다. 클레멘타인은 이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클라리사는 뛰어와서 클레미의 팔을 감싸며 안아줬다.

“엄마 죄송해요.” 클레미는 훌쩍거렸다. “고모할머니를 화나게 하려던 것은 아니에요.”

“괜찮아 얘야. 우리 모두 다 아저씨가 빨리 집에 오시길 바란다. 하지만 아저씨가 아픈 것은 고모할머니 탓이 아니야.” 클라리사는 딸의 뺨에 입을 맞췄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위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자. 모그 아주머니는 네가 예쁜 드레스 입은 모습을 무척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리고 이따 라벤더와 함께 정원으로 가서 결혼식을 구경하자꾸나.”

모그 부인은 코를 훌쩍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클레멘타인에게 미소 지었다.

구세주 바이올렛

클레멘타인은 엄마가 말한 대로 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옷 들 중에 굉장히 예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코트를 걸쳤다. 또한 반짝거리는 빨간 색 부츠를 신고 머리에 리본을 단 후 스카프를 목에 둘러 옷차림을 완성했다.

클레멘타인이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비명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다. 이층으로 내려가자 거기에는 신부의 엄마인 폭스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수건으로 몸을 두른 상태였고, 바닥 곳곳에 물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

“엄마한테 가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 말해.” 로버타 폭스는 클레멘타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제까지 이 날을 위해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뜨거운 물에 샤워조차도 못해?”

옷을 갈아입은 헥터가 방에서 나왔다.

“참 옷기네요, 여보. 난 오늘이 우리 딸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줄 알았는데.” 그가 핀잔을 줬다.

” 무슨 의미지 알잖아요, 헥터. 가서 수리할 사람이나 알아봐요. 당장!” 그녀는 소리를 뿅뿅 지르며 말했다.

오빌 폭스는 아래층으로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노인은 조카며느리에게 윙크를 했다. “안됐지만 결혼식 때는 더 많이 껴입어야 할 걸.”

헥터도 깔깔거리며 크게 웃었다. “저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빌 삼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요, 두 사람 다요!” 로버타는 계단으로 허둥지둥 나가는 남편과 삼촌을 흘겨봤다.

클레멘타인이 폭스부인에게 위층 욕실을 쓰라고 말하려는 순간, 바이올렛이 나타났다.

바이올렛은 폭스부인을 지나쳐 바로 샤워실로 들어갔다. 클레멘타인은 서둘러 바이올렛을 따라갔다. 바이올렛이 수도를 다소 거칠게 고치고, 구석에 있는 낡은 보일러를 두드리는 것을 보며 클레멘타인은 놀랐다.

“이제 됐어.” 바이올렛은 수도를 틀면서 말했다. 뜨거운 김이 욕실 가득 퍼지기 시작했다.

클레멘타인은 놀라워하며 바이올렛을 쳐다봤다. “고모할머니가 고쳤어요.”

“당연히 내가 고쳤지.” 바이올렛은 다시 복도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클레멘타인도 따라갔다.

로버타 폭스는 샤워실로 들어가더니 문을 꽁 닫았다.

“인사는 됐어요.”

바이올렛은 입술을 다물곤 바로 뒤에 따라오는 클레미와 함께 복도 아래로 급히 내려갔다.

“그런데 어떻게 고치셨어요? 엄마는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덕비 아저씨밖에 없다고 했는걸요.” 클레멘타인은 말했다.

“나도 여기에 오래 살았잖니, 클레멘타인.” 바이올렛은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 보일러를 바꿔 본적이 없어.”

“폭스아주머니가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매우 화를 냈거든요.” 클레멘타인은 폭스부인의 표정을 떠올리며 웃음을 참으려고 애썼다.

“글쎄,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바이올렛은 계속 앞을 바라본 채 중앙계단으로 걸어갔다.

“고모할머니” 클레멘타인이 불렀다.

“이번엔 뭐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클레멘타인을 바라봤다. 그녀는 빨간색으로 맞춰 입은 클레멘타인이 매우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아까 제가 말한 건 죄송해요. 덕비 아저씨는 할머니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바이올렛은 급하게 기침하며 돌아섰다. “그거야 모르는 거지.” 그녀는 작게 이야기 했으나 클레멘타인은 듣지 못했다.

“할머니 산책 나가실래요?” 클레멘타인이 물었다.

“좀 있다 나가자.” 바이올렛은 대답했다. “그전에 모그 아주머니를 도와야

해.”

클레멘타인은 자신의 귀를 믿지 못했다. 바이올렛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궁금했다. 클레미는 벽에 걸린 초상화를 올려다봤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지 않을까? 해서였다.

생애 최고의 날

클레멘타인은 아래층으로 뛰어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차들이 진입로에 가득했다. 커다란 꽃 장식이 정원을 지나 마키로 들어오는 동안 스모트 씨는 소리를 지르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스모트 아저씨.” 클레멘타인은 큰 소리로 인사했다.

“좋은 아침, 클레멘타인,” 스모트 아저씨가 대답했다.

클레멘타인은 아저씨의 옷차림이 전날보다 훨씬 더 멋지다고 생각했다. “넥타이가 멋지네요.”

“그래? 고맙구나, 꼬마아가씨,” 이렇게 말하며 그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복도의 시계가 울리자 클레멘타인은 종소리를 췌다. 클레멘타인은 해리엇 폭스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다. 이제 결혼식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클레미 엄마는 결혼식이 정오에 시작한다고 했고 시계는 열한 번 울렸다.

하얀색 승합차가 멈추자 두 남자가 뛰어나와 은색 종이와 하얀 리본으로 포장된 엄청난 선물 꾸러미를 풀기 시작했다.

“우와” 클레멘타인은 탄성을 질렀다. “정말 예쁘네요.” 그 순간 클레멘타인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덕비 아저씨를 응원하기 위한 선물을 찾는 것이다. 이번에 줄 선물은 그저 낡은 선물이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 그래야 아저씨가 빨리 나아 집에 오기만을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클레멘타인은 덕비 아저씨께 뭘 주면 좋을지 고민했다. 그녀의 돼지저금통에는 많은 돈이 들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게는 모그 아주머니네 가게 뿐인데, 거기에는 팔고 있는 물건이 많지 않았다. 클레미는 덕비 아저씨가 뭘 좋아하는지 고민했다. 결혼식이 일단 시작한 후에 엄마에게 마을로 데려다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이다. 클레멘타인이 문을 닫고 돌아서자 계단 위에서 가장 특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우와, 공주님 같아요.” 클레멘타인은 해리엇 폭스의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지며 감탄했다. 그 흰색 드레스는 은색 반짝이로 덮여있었다. 신부의 긴 금발머리는 예쁘게 쪽이 쳐 있었고 그녀는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었다.

해리엇은 활짝 웃었다. “고마워 클라멘타인, 오늘은 정말 공주가 된 기분이야. 근데 아이들 보았니?”

클레멘타인은 고개를 흔들었다,

“애들도 결혼식에 참석할거야. 아라와 알리샤가 식장에 꽃을 들고 입장하고 아크사라를 화동으로 세울 거야.” 해리엇은 설명했다.

클레멘타인은 이 모든 걸 보고 싶었다. 잠시 후 구날링암 부인이 세 아이들을 데리고 해리엇 뒤에 타났다. 그녀는 보라색과 빨간색 천으로 된 아름다운 드레스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드레스는 수천 개의 작은 반짝이가 달려있었다. 그녀 바로 뒤에 두 어린 소녀는 매우 예쁜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그것은 커다란 보라색 리본으로 허리를 묶는 드레스였다. 어린 남동생은 반짝이는 보라색 리본이 달린 검정색 정장을 입었다.

“모두 다 정말 아름다워요.” 클레멘타인은 감탄했다. 그녀는 모그 부인과 가게에서 했던 대화가 생각났다.

“이게 사리인가요?”

“응, 맞아, 클레멘타인.” 부인은 몸을 돌리며 자신의 옷차림을 뽐냈다.

“정말 예뻐요.” 클레미가 말했다.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있는 한 남자가 계단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다가와서, 계단을 반 쯤 내려갔다.

그는 삼각대를 꺼내서 사진기를 설치하였다.

“정원으로 가기 전에 안에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가 설명 했다.

사진사는 신부의 앞 계단 위에 아이들을 세웠다. 클레멘타인은 넋을 잃고 바라봤다. 앉은 사진을 찍기 위해 다들 거실로 이동할 때 구날링암 부인은 사진사에게 뭔가를 속삭였다.

“네 물론이죠. 함께 찍자고 물어보세요.”

“클레멘타인, 해리엇과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을래?” 구날링암 부인이 물었다. 클레멘타인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네, 너무 좋아요.”

사진사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사진을 찍었다. 클레멘타인은 카메라를 보며 활짝 웃었다.

폭스부부는 오빌 삼촌과 함께 아래층에 도착했다. 클레멘타인은 엄마와 고모할머니와 그리고 모그 아주머니를 찾아 결혼식이 이제 곧 시작한다고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정원에서 결혼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벤더는 클레멘타인이 부엌으로 들어갈 때 그녀의 발에 대고 킁킁 거렸다. 클레미는 빨간 줄을 작은 돼지의 목에 걸었다. 라벤더가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위해 정원에 모여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모든 사람들의 근사한 옷차림에 감탄했다. 구날링암 부인의 옷과 비슷한 반짝이는 사리를 입은 여자도 있었고, 예쁜 드레스를 입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남자들 또한 멋있어 보였다. 스모트 아저씨는 마키 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비가 그치고 태양은 빛나고 있었다.

해리엇 폭스와 그녀의 아버지가 검은머리의 세 아이들 뒤에서 임시복도를 걸어갈 때 클레멘타인은 엄마와 고모할머니 사이에 서있었다. 현악 사중주곡이 흘러나오자 클레멘타인은 자신이 들었던 음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곡이라고 생각했다.

아카사라가 작은 바구니에 있던 장미꽃잎을 뿌리자 사람들은 다들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 꼬마아이는 곧 자신이 하던 일에 싫증이 나서 바구니를 거꾸로 뒤집었고 한 무더기의 꽃잎들이 오빌의 발 위로 떨어졌다. 손님들은 웃음을 터트렸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부와 신랑은 서로 많은 말들을 주고받은 후에 반지를 교환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입맞춤을 나눴다. 클레멘타인은 눈을 감았다. 입맞춤은 징그러웠다.

얼마 후 손님들이 마키로 움직이는 동안, 가족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신랑과 신부가 포즈를 취했다. 클레멘타인은 특별한 사진을 위해 아이들이 마키 밖 사자 위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자 이제 다 끝났구나.” 모그 부인은 클레멘타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무슨 생각하니?”

“너무 아름다웠어요. 전 정말 신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전 남자애한테 뽀뽀해야 하는 게 싫어요.” 클레멘타인은 그 생각을 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바이올렛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건 먼 훗날 이야기 같은데, 꼬마아가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클레멘타인의 엄마는 웃으며 클레미의 손을 짹 잡았다.

“필요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안에 따뜻한 난로와 차를 준비해뒀어요.” 모그 부인은 말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바이올렛은 고개를 끄덕였다.

클레멘타인은 몸을 떨었다. “마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춥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아까 살짝 엿봤거든, 히터도 있더라니까? 적어도 비가 올 때는 집안 보다 더 따뜻할 거야.” 모그 부인이 말했다.

“천막을 남겨두는 게 좋겠어, 클라리사. 그럼 우리 모두 거기서 지낼 수 있잖아.” 바이올렛은 장난스럽게 눈썹을 올리며 제안했다.

“고모 말이 맞을 지도 몰라요. 지붕이 마무리 되는 동안 우리는 밖에서 지내야만 해요.”

클레멘타인은 엄마를 보라 봤다. “정말 천막에서 지내야 하는 건 아니죠, 엄마?”

“아니 애야, 우리는 잠시 동안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대답했다.

“모두가 휴가를 가는 것도 좋겠어요.” 모그 부인이 제안했다.

“네, 제발요.” 클레미는 박수를 쳤다. “생각해보자.” 클라리사 귀부인은 클레미 손을 잡고 사람들과 함께 아늑한 부엌으로 향했다.

모그 부인은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바이올렛은 컵 받침대를 찾으러 찬장으로 갔다. 클레멘타인은 고모할머니가 왜 이러는지 궁금했다. 할머니가 무척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클레멘타인의 엄마는 식료품 저장실로 가서 여러 층으로 된 커다란 결혼식 케이크와 오늘 아침 피에르 씨가 배달해 온 쿠키를 가지고 왔다. 라벤더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채 클레멘타인이 배를 쓰다듬는 것을 즐겼다.

“아 맞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제 혹시 우편물 온 거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케이크를 놓으면서 클라리사 귀부인은 물었다. 마가렛 모그는 차를 부으며 돌아봤다. “아니요 근데 참 이상하긴 하죠.” 바이올렛 애플비는 기침을 하고는 방으로 황급히 뛰어갔다. 그녀가 다시 왔을 때 편지 한 봉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제 오후에 내가 너를 태우러 가는 데 밥 신부님이 가져왔더구나, 클라리사. 신부님 말로는 이것들이 신부님 편지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 나도 완전히 잊고 있었어. 비록 네가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다 고지서일거야.” 마가렛 모그는 한숨을 깊게 쉰다. “전 일본도 더 이상 내 남편을 혼자 둘 수 없겠네요. 미안해요. 클라리사.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없기를 바랄게요.”

클레멘타인은 손을 씻고 자신의 고모할머니 옆 탁자에 앉았다. 그녀는 편지들을 보면서 다시금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지 않으려 했다.

클라리사 귀부인은 그 편지봉지들을 휘저었다. “고지서, 고지서, 고지서 휴!”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 마시고 클레멘타인에게 봉투 하나를 넘겨주었다. “이건 네게 온 거다.”

“저한테요? 뭐예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클레멘타인은 봉투를 찢어 열었고 그 안에는 펼쳐진 카드가 있었다. 왕 그림 옆에는 그녀의 이름이 휘갈겨 쓰여 있었다. “뭐라고 써 진거예요?” 그녀는 들뜬 채로 말하며 카드를 바이올렛에게 보여줬다. “안경을 껴야겠구나.” 고모할머니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안경을 집어 들었다. “편지에는 ‘초대합니다. 클레멘타인 로즈’ 라고 써여 있네.”

“야호!” 클레멘타인은 팔을 하늘높이 들어올렸다. “앵거스가 일부러 날 뺀 게 아니었어.” 고모할머니는 말을 막으려는 듯 인상을 썼다. “나머지도 들려 줘?” “네, 제발요.” 클레멘타인은 두 손을 마주 잡았다. 바이올렛은 파티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 등을 자세히 읽어주었다. 클레멘타인의 입이 짝 벌어졌다 “이런!”

“이젠 뭐가 문제냐?” 고모할머니가 물었다. “난 네가 파티에 가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런 척 해도.”

“난 줄 선물이 없어요. 앵거스는 모두가 좋은 선물을 줘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원 아래 살고 있는 용의 먹잇감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했어요.” 클레멘타인은 진지하게 말했다.

“세상에나. 만약 그 애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난 그 생일 파티에 가고 싶지 않을 거다.” 바이올렛은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너는 그 정원 밑에 용이 살지 않는 다는 걸 알잖아? 그렇지? 그 아이는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구나.”

클레멘타인은 확신할 수가 없었다. 앵거스는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땐 매우 설득력 있어 보였다.

“나중에 마을에 데려다 줄 수 있나요?” 클레멘타인은 엄마에게 물어봤다. “저는 덕비 아저씨에게도 완벽한 선물을 줘야 해요.”

모그 부인은 세 개의 잔에 진한 홍차를 따르고 있었다. “어우 애야, 나는 오늘 시간이 없을 거 같구나. 근데 아마도…”

클라리사 귀부인은 바이올렛을 쳐다봤다. 클레멘타인도 엄마를 따라서 고모할머니를 쳐다봤다.

“고모할머니 저를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제발요?” 클레멘타인은 파란 눈을 반짝이며 고모할머니를 쳐다봤다. “잘 모르겠구나, 클레멘타인 내가 오늘 할 일이 있어서…” 바이올렛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제발 제발요” 바이올렛은 애원하는 아이를 쳐다봤다. “그래, 알겠다.” 그녀는 마지못해 말했다.

클라리사 귀부인과 모그 부인은 미소를 서로 나눴다.

클레멘타인은 믿을 수 없었다. 난생처음 결혼식에 참여했고 다음 주에는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에 간다. 그리고 고모할머니는 클레멘타인을 도와 앵거스와 덕비 아저씨에 줄 최고의 선물을 찾는데 도와주겠다고 했다.

선물 찾기

클레멘타인과 바이올렛은 코트를 입고 오후 햇살이 비치는 밖으로 향했다. 클레미가 라벤더에게 같이 산책 가고 싶은지 물어봤지만 이 조그만 한 돼지는 몸을 돌려 눈을 감았고 파라오 역시 잠들어 있었다. 파라오는 정말 잠꾸러기다.

커다란 음악 소리가 정원에 가득했고 클레멘타인은 멈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클레미와 바이올렛은 머리만 텐트 안으로 내밀었고 오빌이 사리를 입은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움직임을 따라서 춤추는 것을 보고 웃었다. “유치한 늙은이 하고는” 바이올렛은 씩씩거리며 말했다. 클레멘타인은 크게 웃었다.

스모트씨는 입구 옆에 서서 결혼식 파티를 지켜보다 바이올렛과 클레멘타인이 온 걸 알아차렸다. 그는 그들 옆으로 다가 갔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그는 행복한 듯 말했다. “이젠, 확실히 펜버디 하우스에서 결혼식을 하는 걸 앞으로 더 많이 추천할 수 있겠어요.”

“멋진 생각이예요.” 클레멘타인은 대답했다. “엄마가 무척 기뻐 할 거예요, 그죠, 고모할머니?” 바이올렛은 마치 냄새 나는 뭔가를 밟은 표정을 지었다. “네 엄마는 좋아하겠지.” 두 사람은 스모트 씨에게 작별인사를 한 뒤 계속해서 정원뒤뜰을 통해 돌로 된 다리를 건너고 교회를 지나 모그 부인네 가게로 갔다. “뭘 살지 결정 했니, 클레멘타인?” 고모할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물어봤다. 클레멘타인은 고개를 저었다. 클레미는 딱히 뭘 사야 할 지 모르지만 봤을 때 맘에 드는 걸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모그 부인네 가게에는 다양한 장난감들이 있지만 작은 것들 뿐 이어서 앵거스에게 줄 만한 게 없었다. 클레멘타인은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았지만 맘에 드는 게 없었다.

딕비 아저씨를 위한 선물을 고를 때는 클레미는 몇 가지 마음에 둔 것이 있었다. 아저씨는 면도 후에 로션 바르는 걸 좋아하지만, 특정한 제품만을 쓴다는 걸

클레미는 알고 있었다. 새 펜을 주는 것도 괜찮아 보였지만 가게에는 평범한 펜 밖에 없었다. 마침내 클레멘타인은 덕비 아저씨가 카드놀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아무런 카드도 찾을 수 없었다. 모그 아저씨가 말하길 밥 신 부님이 오늘 아침 일찍 마지막 남은 카드세트를 사갔다고 했다.

선물을 고르는 것은 클레멘타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퍼츠위슬 씨에게 카드를 만들어줘서 같이 카드 놀이하는 건 어떠니?” 바이올렛이 제안했다. 클레멘타인은 덕비 아저씨 선물을 그걸로 결정하면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앵거스에게 줄 선물이 해결한 건 아니었다.

“네 엄마가 내일 하이튼 밀에 가서 뭔가 사올 수 있을 거야” 바이올렛이 말했다. “아님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엄마가 집에 선물을 넣어두는 장식장을 갖고 있지 않니?” 클레멘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엄마는 갖고 있었다. 왜 진작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엄마는 수년 동안 많은 물건들을 받아 왔기 때문에 엄마의 장식장은 거의 꽉 차있었다. 거기서 뭔가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클레멘타인과 바이올렛은 모그 아저씨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아저씨는 두 사람이 가는 걸 보고 매우 기뻐 보였다 이것은 아마 모그 아저씨 등 뒤로 들려오는 텔레비전의 축구소리와 관련 있을 것이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클레멘타인은 몇 번이나 서서 단풍잎을 주웠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카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클레미는 생각했다.

클레멘타인은 돌담 옆에서 몸을 구부리고 있다가 놀라워하며 벌떡 일어났다. 벽에 뭔가가 박혀있었다.

“고모할머니” 클레멘타인이 불렀다. “여기 와서 이것 좀 보세요.” 바이올렛은 코를 훌쩍이며 천천히 걸어왔다. “뭔데 그러냐?” 클레멘타인은 벽 쪽을 가리켰다. 바이올렛은 그곳을 가만히 봐라 봤다. “세상에 오래 동안 이걸 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 내가 소녀였을 때 이후로 쪽 본 적이 없단다.” 그녀는 다가 가서 조심스럽게 그 특이한 물체를 집었다. 클레멘타인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다. “물어요?” 그녀가 물어봤다. 바이올렛은 웃었다. “아니, 클레멘타인 절대 안 물지.” 클레멘타인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예뻐요.”

“그래, 그리고 매우 희귀하단다.” “나는 퍼츠위슬이 우리 집에 처음 일하러 왔을 때 이것들을 수집하던 게 기억나는구나.”

“정말요?” 클레멘타인이 물었다.

“응. 그는 부엌 창틀에 이것들을 보관했다.”

“아저씨가 이것을 좋아할까요?” 클레멘타인이 물었다.

“내 생각엔 최고의 선물인 거 같은데?” 바이올렛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매우 쉽게 망가진단다, 클레멘타인. 집에 가져간 후 안전하게 싸서 보관하는 게 어떻겠니?”

클레멘타인은 동의했다. 이제 앵거스를 위한 최고의 선물만 찾으면 된다.

평화와 고요

클라리사 귀부인은 클레멘타인과 바이올렛이 찾은 것을 보고 매우 신이 났다. 그녀는 상자를 찾아와서 클레멘타인이 조심스럽게 포장하는 것을 도왔다. 선물 장식장에서 어린 남자애가 좋아할만한 많은 보물들을 빠르게 발견했다. 클레멘타인은 선물로 적당해 보이는 뭔가를 발견했다. 그리고 엄마가 선물 포장을 도와줬다.

“딕비 아저씨와 앵거스에게 카드를 만들어 주는 건 어떠니?” 엄마가 제안했다.

“그런 다음 상자 위에 카드를 붙여 선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자”

클라리사 귀부인은 얼굴을 찌푸렸다. 엄마는 다른 포장지를 사용하여 선물을 포장했어야만 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일찍, 폭스부인이 부엌에 나타났다. 바이올렛과 클레멘타인은 식탁에서 함께 책을 읽고 있었으며 클라리사 귀부인은 저녁 준비를 하느라 매우 바빴다. 클라리사 귀부인은 정원에서 결혼식 파티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했다.

“에헴.” 폭스부인이 인기척을 냈다. 클라리사 귀부인은 당근을 썰다 말고 뒤 돌아봤다. “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것을 드리려고 왔어요.” 폭스부인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났나요?” 클라리사가 물었다.

“네, 해리엇와 라이언은 좀 전에 떠났고 우리도 짐을 싸고 이제 집으로 가고 합니다.” 폭스부인이 말했다.

“결혼식은 잘 치르셨나요?” 클라리사 귀부인은 조금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폭스부인은 까다로운 손님 중 한명이었다.

폭스부인은 크게 웃었다. “정말 근사 했어요.” 남편과 전 이보다 더 신이 날

순 없을 거예요. 음식은 너무나 훌륭했고 세팅도 아름다워요. 오, 스모트 씨는 정말 마술사 같아요.”

클레멘타인은 혼자 미소를 지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니 매우 기뻐요.” 클라리사 귀부인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제가 없었던 건 정말 죄송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마세요.” 폭스부인이 혀를 찼다. “전 퍼츠위슬씨가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이 있으면 온갖 문제가 생긴다는 건 신만이 아시겠죠.”

바이올렛은 그 말을 듣고 인상을 썼다.

“제 말은 오빌 삼촌 얘기에요.” 폭스 부인이 빠르게 말했다.

“아, 그럼요.” 바이올렛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클라리사 귀부인은 봉투를 받고 주방 작은 탁자위에 놓았다. 그녀는 이 봉투 속 돈이 새로운 지붕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럼 제가 배웅할게요.”

그녀는 폭스부인을 현관 홀로 안내했다.

클레멘타인은 따라가다가 아래층 계단에서 구날링암 의사선생님을 마주쳤다. 그는 마지막 남은 가방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었다. “잘 지내 거라, 클레멘타인” 의사선생님은 말했다. “만나서 반가웠어.”

“아이들이 벌써 가버렸나요?” 클레멘타인이 물었다. 아랴, 알리샤, 그리고 아크사라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애들은 차에서 자고 있는데 어찌지? 아, 그리고 클레미” 의사선생님은 클레미를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퍼츠위슬 씨는 반드시 나올 거야.”

클레멘타인은 밝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구날링암 아주머니와 아이들한테도 잘 가라고 전해주세요.”

클레멘타인은 엄마와 함께 현관문 앞에 섰다. 구날링암 가족과 폭스 가족의 자동차가 출발할 때 클레미는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내 공주 드레스 찾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클레미가 물었다. “당연하지 야야. 그리고 너에게 전해줄 놀라운 소식이 있단다.” 클레멘타인은 엄마를 바라봤다. “놀라운 소식이요?”

“그래, 병원에서 좀 전에 전화가 왔어. 덕비 아저씨가 화요일에 집에 올 수 있다고 하더라.” 클레멘타인은 활짝 웃었다.

최고의 날

클레멘타인은 자신도 앵거스 파티에 간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엄마는 일요일 오후 아치보드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초대에 대한 대답이 늦은 점에 대해 사과를 하고 우편물이 섞여있었던 것을 설명했다. 아치보드 부인은 앵거스가 클레멘타인이 파티에 안 올 줄 알고 슬퍼했지만 이젠 기뻐할 거라고 했다. 클레멘타인은 그게 정말 사실인지 또는 아치보드 아주머니가 그저 친절하게 말한 것뿐인지 궁금했다. 그러나 학교에 갔을 때 앵거스는 바로 클레멘타인에게 뛰어왔다.

“내 파티에 온다니 매우 기뻐 클레멘타인” 앵거스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고마워 앵거스” 클레멘타인이 대답했다.

“야호, 이제 내 용이 아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거야.” 파피가 시선을 돌려 앵거스를 쳐다봤다. “넌 용도 없으면서.”

“아니, 있거든, 그리고 내 용이 여자애들을 잡아먹을 거야.” 앵거스는 말하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그런데 내 용은 달콤한 것만 좋아해 그래서 너는 잡아먹지 않을 거야, 파피” 클레멘타인은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끼어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못써, 앵거스! 어쨌든 나도 안 먹겠네.”

“아니 넌 잡아먹을 걸?” 앵거스가 말했다. 조슈와는 앵거스 옆에 계속 서 있었다. 그리고선 이젠 친구를 보며 우스운 표정을 지었다. “너 재 좋아해?” 조슈아가 물었다.

“음 말도 안 돼!” 앵거스는 그의 머리를 흔들었다. “재는 여자애고 난 여자애라면 다 싫어.” 앵거스는 조슈와 뒤를 바짝 쫓아 운동장으로 뛰어갔다. 에스트리드는 파피와 클레미에게 걸어왔다. “앵거스는 널 좋아하는 거야.” 에스트

리드가 말했다. 클레멘타인은 그 말에 혼란스러웠다. “난 그렇게 생각 하지 않아. 언제나 못되게 구는걸.”

“남자애들은 원래 그래.” 에스트리드가 설명했다. “남자애들은 언제나 좋아하는 여자애에게 못되게 굴어. 그러니깐 앵거스는 파피, 너도 좋아할걸.” 파피는 얼굴을 찡그렸다. “글쎄, 난 그 애가 싫어. 그건 확실해.”

“난 남자애들을 이해할 수 없어.” 클레멘타인은 심각하게 말했다. 그러나 에스트리드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날 하루는 매우 빠르게 지나는 것 같았다. 클라리사 귀부인이 학교가 끝난 뒤 클레멘타인을 데리러 왔고 클레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천막은 없었으며 즐거운 주말을 떠올리게 하는 건 거의 없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앵거스의 선물과 함께 공주 의상을 다른 가방에 따로 챙겨 주었다 선물은 부엌 작은 서랍 속에 덕비 아저씨 선물 옆에 놓여있던 것을 클레미가 갖고 온 것이다.

클레멘타인은 잠이 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클레미는 파티 때문에 신이 났고 덕비 아저씨가 집에 돌아오는 것이 몹시 기대됐다.

월요일과 달리 화요일은 시간이 가지 않은 것만 같았다. 바텀리 선생님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몇 시에 끝나는지 물어보는 통에 짜증이 났다. 그녀는 차라리 아이들의 관심을 이용해 시계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클레멘타인은 좀 더 일찍 배웠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클레미는 입학 첫날부터 시계 읽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다.

마침내 종이 울리자 바텀리 선생님은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지켜봤다. 바텀리 선생님은 클레미가 몹시 싫어하는 두 줄로 세워서 건기를 시켜서 아이들이 앵거스의 집까지 행진하듯 걷게 했다.

모퉁이 하나만 지나면 앵거스네 집이었다. 아이들은 왕관을 쓰고 예복을 입어서 매우 이상하게 보였다. 특히, 검과 왕의 인장을 휘두르고 있는 아이들은 더욱 그렇게 보였다.

아이들은 뒤쪽 정원으로 안내되었다. “안녕하세요? 스모트 아저씨” 클레멘타인은 뛰어가며 외쳤다.

아저씨는 왕처럼 옷을 입고 있었다. “클레멘타인!” 그는 고개를 숙였다.

“오, 다시 봐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구나!”

클레미는 정원주변을 바라보았고 커다란 판지로 된 성을 봤다. 그 성은 아이들이 기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컸다. 울타리에는 방패가 걸려 있었고, 아이들이 올라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목마도 있었다.

“아저씨는 정말로 마술사 같아요!” 클레멘타인은 말했다.

“뭐 별로 대단 한 것도 아닌데.” 아저씨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말이야, 앵거스는 매우 착한 아이란다.”

아저씨는 앵거스가 학교에서 어떤지 보지 못한 게 틀림없다.

앵거스의 엄마와 스모트 아저씨는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많은 게임을 준비했다. 수건돌리기, 말 꼬리 달기, 의자에 먼저 앉기 놀이, 숨바꼭질 등이 있었다.

앵거스가 자신의 용을 보관한 곳을 계속해서 가리키자, 클레멘타인과 친구들은 어떤 게임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에스트리드는 정원 아래로 행진하듯 걸어 가서 앵거스가 용이 있다고 한 곳에 숨었다. 클레멘타인은 에스트리드가 무척 용감하다고 생각했다.

오후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 그들이 지기 시작하자, 앵거스는 성 모양으로 된 케이크의 촛불을 켜고 아이들은 모여서 선물을 여는 것을 지켜봤다. 몇몇 부모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조슈아는 그에게 장난감 기차세트를 줬고, 파피는 영웅 복장을 줬고, 소피는 축구공을 줬다. 클레멘타인의 선물은 제일 마지막 순서였다.

클레멘타인과 엄마는 아주 작은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날아다니는 장난감 벌레를 찾아냈다. 클레멘타인은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싶었지만, 엄마는 여섯 살 남자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주변에서 앵거스가 그 선물 포장지를 뜯는 것을 기다렸다. 클레멘타인은 작은 갈색상자를 바라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앵거스는 뚜껑을 열고 쳐다봤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클레멘타인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앵거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와!” 앵거스는 감탄했다. “오! 이건 정말 최고의 선물인 걸?” 클레멘타인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런데 사실 그 선물은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이야?” 앵거스는 인상을 쓰며 그녀를 쳐다봤다.

“그건 너의 것이 아니야.” 클레멘타인의 입술은 떨렸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지만 이걸 정말 멋진데?” 앵거스가 말했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야.” 그는 조심스럽게 매미허물을 상자에서 꺼냈다.

“어머, 이게 뭐니?” 바텀리 선생님은 고개를 숙여 선물을 살펴봤다. “오, 이것은 매우 희귀하고 소중한 매미의 껍질이구나.”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뜬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이건 정말 최고의 선물이야!” 앵거스는 매우 신이 났고, 그는 몸을 돌려 클레멘타인의 뺨에 뽀뽀했다. 모두가 킁킁거렸고, 클레멘타인의 뺨은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앵거스의 귀도 빨개졌다. “음, 역겨워, 여자애랑 병균 옮잖아,” 조슈아는 소리 질렀다. 아이들 사이로 손 하나가 불쑥 들어왔고, 트리블 부인은 아들을 자신의 옆으로 껍 끌고 왔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안고서 그의 뺨에 소리 나도록 뽀뽀했다. “나도 너한테 여자병균을 옮겼구나, 조슈아 트리블”

조슈아의 거부하는 울부짖음에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다,

“걱정 말거라, 클레멘타인,” 옆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고모할머니였다.

“퍼츠위슬은 이해할거야”

클레멘타인은 놀라며 쳐다봤다. 고모할머니가 왔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정말 그럴까요?”

바이올렛은 윈크했다. “내가 알기론 그래.”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앵거스는 사탕가방을 나눠주었다. 앵거스가 클레멘타인에게 사탕가방을 줄 때는 특별히 고맙다는 말을 하며 포옹을 해줬다.

클레멘타인은 앵거스가 자신을 꼭 껴안자 손을 옆구리에 대고 가만히 있었다.

“네가 준 선물 맘에 들어.” 앵거스는 조용히 말했다.

“어서가자, 클레미” 고모할머니가 말했다. “네 엄마랑 덕비 아저씨가 지금 쫘 집에 와 있을 게다.”

“덕비 아저씨” 클레멘타인은 아저씨 이름을 외치며 고모할머니를 앞서서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딕비는 부엌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다시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는 클레멘타인을 보며 웃었다. “안녕 꼬마아가씨”

클레멘타인은 빠르게 아저씨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다.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엄마와 고모할머니 그리고 모그 아주머니가 결혼식으로 바쁘게 뛰어다녔고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왔을 때는 끔찍했어요. 하지만 고모할머니가 바로 고쳤어요.” 클레미는 계속 재잘거렸다.

“심장을 괜찮아요?”

“내 낡은 심장은 괜찮아. 걱정할 건 전혀 없어.” 그는 대답했다.

클레미 그 말을 들으니 기뻐했다. 아라의 아빠가 고장 난 심장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클레멘타인은 딕비 아저씨에게서 몸을 떼고 바로 주방 찬장으로 뛰어갔다. 딕비 아저씨의 카드가 앵거스의 선물에 붙어있었다. 클레미는 카드를 들고 탁자에 놓았다,

바이올렛은 작은 상자를 가리켰다. “자 어서, 클레멘타인 딕비 아저씨에게 선물도 드려야지.”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클레멘타인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뭐가, 클레멘타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고모할머니는 클레미를 격려했다.

클레미는 다시 뛰어가서 선물 꾸러미를 집었다. 그녀는 아저씨를 슬픈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딕비 아저씨는 카드를 읽었다. 카드 앞장에는 클레멘타인과 라벤더가 바이올렛과 파라오 그리고 클라리사 귀부인이 서있는 사진이 붙어있었다. 카드에는 “누가 빠졌을까요?” 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그는 카드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사진이 붙어있었다, 카드에는 “딕비아저씨” 라고 적혀있었다. 그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 그는 얼른 눈물을 닦고 카드를 큰소리로 읽었다. 클레멘타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엄마한테 말했고 엄마가 그것을 종이에다 적었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이 카드에다 조심스럽게 엄마가 쓴 글을 그대로 따라 썼다.

“딕비 아저씨, 빨리 나오세요. 우리는 아저씨가 무척 보고 싶어요, 고모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클레멘타인과 라벤더가 키스를 보내며.

딕비 아저씨는 웃었다. 클라리사 귀부인도 웃었고 바이올렛도 미소를 지었다,

“자, 그럼 선물 열어보지 않을 거예요?” 바이올렛이 물어봤다.

딕비 퍼츠위슬은 접착테이프를 뜯고 포장을 풀었다, 클레멘타인은 아저씨가 상자 뚜껑을 열 때 옆에 서있었다.

“오!” 그는 소리쳤다. “내가 꼬마였을 때 갖고 싶었던 것들인데.”

“정말요?” 클레멘타인은 웃었다. “진짜예요?”

바이올렛은 기침을 했다. “백 년 전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퍼츠위슬 씨.”

그는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벌레를 꺼냈는데 그것은 커다란 호박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작은 조종 장치도 있었다.

“한번 날려보자.” 스위치를 누르자 작은 날개가 펄럭이기 시작했다. 이 곤충은 웅웅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바이올렛에게 부딪혀 떨어졌다.

“조심하셔야죠,” 그녀가 소리 질렀다.

그의 입이 실룩거렸다.

“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더 재미있게 놀 수 있겠구나.” 그는 큰소리로 꿀꿀거리는 라벤더를 지나 발로 치려는 파라오 쪽으로 날려 보냈다.

“고맙다 클레멘타인. 이 선물은 최고로 멋진걸.” 딕비 아저씨는 클레멘타인을 안아주고 그녀에 이마에 키스를 했다. 그 순간 작은 벌레는 탁자 위에 충돌했고 피에르 아저씨의 딸기 스펀지케이크 한 가운데로 빠져버렸다.

클레멘타인은 딕비 아저씨를 꼭 껴안으면서 엄마와 고모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렇다. 정말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행복한 순간이었다.